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 버려 중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4일)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기재부 "지방비 30% 배정" 문화재관람료 감면 '빨간불'

본사주지협, "감면 예산 지원 거부"…조계종도 반대 입장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올해 변화되는 것 중 하나가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다. 이는 감면 관련 예산 419억 원이 확정돼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향후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감면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419억 원 예산 중 30%를 지방비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럴 바엔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역시 비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는 1월 17일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에서 제76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 등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419억 원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기재부, '민간경상보조' 사항임에도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 중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주체 '사찰'
지자체 전가 불가… 국가 지원해야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재무부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을 보고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 이후부터 전국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랍 24일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근거로 관련 예산 419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자료를 근거로 평균치에 해당하는 2019년 관람료 징수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무료관광객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 산출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기재부가 예산 419억 원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배정하고, 국고 30%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으면서 생겼다.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 지원비는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7:3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전금' 이기 때문에 지방비 배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실제, 지자체 경상보조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이 배정 · 집행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책정된 문화재 관련 보수 지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정산 보고 자료를 통해 지자체 등이 사찰 경영을 간섭할 우려도 있다.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으면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이중고도 예상된다. 또한, 예산을 사찰별로 신청 · 지원받게 되면 종단의 감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김정호 조계종 총무원 재무차장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감면의 주체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임의로 민간 경상보조 사항을 지자체 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 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임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관람료 감면 예산 30%를 할당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될 경우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대한 예산을 전면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기재부가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을 고수할 경우, 예산 거부 등 종단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1월 18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우하)의 기자브리핑에서도 조계종은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진행되면 전국 사찰에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만한 감면 정책을 위해서라도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구본사 및 문화재보유사찰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방침을 당초 협의대로 '민간 경상 보조' 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실제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발생한 만큼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 형태로 항목을 변경해줄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내외빈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불교지도자들 "동체대비 실천이 불교 근본"

종단협,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정관계 인사 등 300여 대중 참석해
진우 스님 "슬픔 나눔이 불자의 역할"
尹 대통령 "자리이타행으로 위기극복"


종단협 신년하례에서 종단 지도자들이 상호 소개하며 박수를 치고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와 불교 안팎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동체대비 실천으로 슬프고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동체대비 실천으로 슬프고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 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협 소속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국회 정각회 김영주 · 서영교 · 이수진 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구태서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300명이 자리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부처님전에 연등과 꽃 공양을 올린 뒤 진리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을 다짐하며 3배 했다. 이후 서로 배례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동체대비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불자들의 역할은 그 잘못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웃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라며 "함께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하는 불교 본연의 자세"라고 설했다.

이어 "사회의 위기는 우리 불교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며 "불교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며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협 부회장 호명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자리이타행을 불자와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계묘년 한 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국민과 불자들을 희로애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힌 호명 스님은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한시도 부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자리이타행으로 작게는 이웃을 위해 넓게는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 및 행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자리이타와 동체대비행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나라 안팎이 녹록치 않지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함께 이로움을 위해 정진하는 자리이타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위기를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부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국회 정각회원 서영교 의원은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공복(公僕)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서 의원은 "향이 자신을 태워 향기를 내고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이 저희 의원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대중들은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비우고 바꾸고 살리는 삶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온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 "참회하고 서원하면서 정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승가공동체 정신을 살려 화합하면서 원융무애의 불국정토를 일구겠다"고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부처님전에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5년 내 年출가자 200명 회복시키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1월 17일 신년기자회견

출가자 감소 대응 제1과제 제시
종립학교, 軍서 현장 출가 상담
기본교육기관 조정 2년간 유예
“출가자 증대로 기관 조정 해결”
MZ세대 전법 인재 발굴 · 활용
“출가 장려가 곧 포교전법 활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9대 교육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출가자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년 후에는 연간 출가자 150명, 5년 후에는 200명 선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5년 안에서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목표로 걸고 출가 진흥 정책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원장 혜일 스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혜일 스님이 제9대 교육원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으로 향후 5년간의 승가교육 종책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천명한 혜일 스님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의 백년을 책임질 인재를 담아내는 종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혜일 스님은 제1과제로 ‘출가자 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스님은 교육원에 취합된 각종 자료를 통해 급격한 출가자 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 중심의 출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포교원과 협업해 종립학교, 대학교 불교동아리, 군부대 등에서 현장 출가상담을 진행하며, 출가지도법사(사찰 교무국장)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혜일 스님은 “미래세대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직접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겠다. 명상과 상담을 중심으로 젊은 스님과 청장년 세대의 만남의 장을 일상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출가가 새로운 인생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종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지난해 61명에 그쳤던 출가자 수를 향후 3년 내로 150명 선, 5년 내로 200명 선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게 혜일 스님의 계획이다.

혜일 스님은 학인 감소로 인한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 역시 출가자 증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소로 기관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출가자를 늘려서 기본교육기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종단을 운영하고 교육기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200명이 출가해야 한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목표를 200명으로 잡았다”면서 “제9대 교육원에서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을 하지 않겠다. 우선 2년 동안 유예하고 출가자를 늘려 해당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전법, 교육 활동 인재 발굴과 지원’도 MZ세대 전법, 출가 진흥 종책과 맞닿는다. 교육원에 따르면 △연수교육에 ‘출가’에 대한 관심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반영 △전국 사찰 법회시 ‘출가’ 주제 법문 독려 △출가상담사 · 현장 활동 스님 발굴 및 지원 강화 △행자 생활 기간 중 애로사항 상담 등의 종책들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에는 출가진흥팀 강사진을 구성해 발심 출가 연수 교육 시행하며, 사찰지경영지도자 과정에서 출가 장려 종책기조를 공유키로 했다.

종단 및 교구본사, 말사로 출가 관련 법문 활성화를 독려하고, 법문을 위한 문안들도 제작해 제공된다. 또한 행자 하산률 감소를 위한 상담 매뉴얼도 개발 · 배포할 예정이다.

“출가 장려가 곧 포교 전법 활동”이라고 강조한 혜일 스님은 “비구 · 비구니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전법포교 인재”라면서 “이들 스님들이 현장에서 포교하며 출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혜일 스님은 종단 · 불교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전법 실천 중심 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혜일 스님은 “시대와 소통하는 불교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 교과목과 더불어 인문학 강의에 대한 교과목을 적극 도입토록 할 것”이라면서 “불교 기본 교리에 대한 확신과 출가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교과목 개편을 검토해 기초 · 기본교육과정의 예비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성과 있는 교육은 유지하고, 승가 정체성과 전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면서 “승가결사체, 인증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전체 교육의 통일성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해인사 주지 사직 보류…조사 진행”

총무원 1월 18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주지 범계 논란에 사과 표명
원타 스님 주지 임명 ‘불투명’
현응 · 성공 스님 산문출송돼

조계종이 최근 불거진 해인사 주지 범계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논란 당사자인 현응 스님에 대해 징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월 18일 대변인 성화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의 범계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사과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해인사 현 주지 스님이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 상황에 따라 사직 처리는 보류했다”면서 “종단은 종헌 · 종법 적용 판단 및 종단 조치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호법부가 지난 1월 12일 관련 당사자에 등원을 통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호법부 조사와 별도로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조사와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사 과정을 통해 범계 사항이 확인되면 종단 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인사권자인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러한 절차 이후 종헌 종법에 의거해 후임 주지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인총림 해인사는 1월 16일 경내 관음전에서 제1차(임인년 동안거 해제) 임회 회의를 열고 유나 원타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현응 스님의 사직 처리가 보류되고 호법부 조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인총림 임회에서 주지 후보로 추천된 원타 스님의 임명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현 주지 스님의 사직이 보류됐기 때문에 해인총림 임회를 통해 추천된 원타 스님의 주지 임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임회에서 현재 범계 논란이 불거진 현응 스님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총림과 방장 스님을 폄훼한 성공 스님에게 ‘산문출송(山門黜送, 절에서 내쫓음)’을 결의했다.

또한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1월 19일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최근 前주지 현응 스님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그와 더불어 해인사의 청정 수행 도량에서 승풍이 실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모든 종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참회문을 올린다”고 참회했다. 이어 “승풍 회복을 위해 동안거 해제일까지 대적광전과 각 수행처에서 참회 기도를 통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화종 “종단 재도약 원년” 선포

종정 스님 신년하례법회서 신임 집행부 임명장 수여도

법화종이 계묘년 새해를 ‘종단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종도들의 원력을 토대로 종단 안정을 넘어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1월 4일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계묘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신년하례는 의성 수도암에서 종정스님과 종단 원로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한 후,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법회는 전통방식의 삼귀의와 법화종요, 여래수량품자아게 봉독에 이어 통알의식으로 시작됐다. 장소 특성상 부처님을 대신해 불교기를 향해 삼배한 대중은 종정 도선 대종사와 원로원 스님들, 총무원장 관효 스님과 서로를 향해 삼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을 나눴다.



종정 도선 대종사는 신년법어로 ‘종종인연 수종종행(種種因緣 修種種行) 득무상법 시방만경(得無上法 十方萬境) 환희포시 화합종단(歡喜布施 和合宗團)’의 가르침을 전했다. 대종사는 “가지가지 인연으로 각각 가진 고행을 닦아 위업묘법을 얻었거든 시방세계 끝까지 환희심으로 베풀고 화합종단을 이룩해 나가자”며 종도들이 본래 면모를 되찾고 수행에 진력하는 가운데 종단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해가 바뀌면 원력을 새롭게 세워 나아가듯, 우리 종단도 새 원력을 세워 일일신 우일신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총무원장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종단 변혁과 개혁의 두 수레바퀴는 올해도 중단없이 굴러갈 것으로, 우리 종도들도 더 이상 구습에 안주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종단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한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신년법회에서 제20대 총무원 2기 집행부 인사 단행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에 기반한 인사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참다운 승가정신 회복에 앞장서는 총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쉽지 않았던 ‘전국교구 순회 대중공사’도 3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참석 사부대중은 수도암 반야월 보살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새해 금강석과 같은 굳은 신심으로 파사현정을 실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종사에 만세반석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며 새해를 맞아 종단 재도약을 위한 원력을 재차 다짐했다.

신년하례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법석이기도 했다. 이날 법화종은 의성군청에 백미 20kg 150포대를 기탁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齋(재) 의식의 변화 輩(연) 소형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포교당 사용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현장영상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이태원 참사 49일째 '추모 위령제'
공단자수 (번) 幡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

조계종, '순례·청년' 키워드로 포교 나선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 1월 17일 신년기자회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 ON' 슬로건 내걸고
전국 순례 프로그램 개발
청년포교기관 연계한 전법
新포교콘텐츠 개발·보급
"시대 소통 전법 이끌 것"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제8대 포교원의 기조 및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법ON'의 슬로건을 내건 조계종 포교원이 2023년을 맞아 '순례 대중화'와 '청년 포교'를 양대 축으로 포교 활성화에 진력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3년 기자회견을 열고 '순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제8대 포교원은 지난해 2월 '전법ON! 제8대 포교원!'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종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올해 새 신행 트렌드인 순례 프로그램으로 수행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대학생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행문화로 '순례' 대중화 박차

제8대 포교원은 상월결사 순례에 발맞춰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용주)을 주축으로 화엄사와 천은사 순례길을 시작으로 순례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2년에는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제주 관음 순례길,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수관음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을 개발하였으며, 포교사를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례의 장을 연 바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23년 한국·인도 수교 50주년과 함께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기해 종단 차원의 순례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과 전법교화의 원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에 걸친 8개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아미타48길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한 33관음성지 사찰 순례길을 확정, 활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순례길 특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도 지속 강화한다. 또 일본 시코쿠 순례길을 비롯한 다양한 순례길에 대한 기초자료를 쌓고 장점을 흡수, 전국단위 순례길 네트워크 구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1년간 개발한 순례길이 10여 곳으로 개발을 통해 순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시코쿠 순례길 등 다른 나라 순례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여 국내 순례길을 조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순례 네트워크도 구축하려는 원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타격 '청년포교' 활성화

제8대 포교원은 2023년 코로나 기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청년 포교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종단 미래본부, 교육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 간담회를 열고, 장학금 지원 확대를 꾀한다.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대학법당 개선지원사업, 미래세대 전법순례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불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툰과 시나리오, 동화, 일러스트 등 콘텐츠 분야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지속하며 작가 템플스테이도 시행한다. 올해 3월 차드 몽탄 등 해외 명상지도자들의 내한 때 명상을 통한 청년 포교의 장도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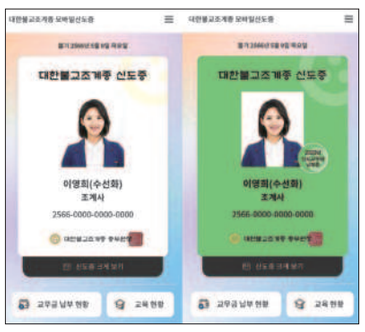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은 2022년 부처님의 생애를 국민에게 친근한 레고 무비 형태로 제작하고, 유명 유튜버 및 포교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다. 시대와 소통하는 포교 방편을 마련하고,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역량도 결집하겠다"며 "1사찰 1학교로 지역사찰과 대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연결고리를 잇고, 전법단, 교수불자연합회, 포교원 등이 함께 청년포교에 나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포교사 제도 개선과 10개 분야 전법단 활성화, 전법중심도량 지원 및 활성화, 포교원력결집대회 3개 권역 개최, 모바일 신도증 보급 및 홍보 등도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현 시대 포교의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소통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감하는 포교를 진행하겠다"며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을 닮아 가겠다는 굳은 신심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원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신도증 시대…신도관리 스마트해진다

조계종 포교원 관련 어플 출시
기존 신도카드 '모바일'로 구현
구글·앱스토어서 '신도증' 검색
기본인적사항 기입해 사용가능
교무금 납부·교육이수 한눈에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 공개한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 왼쪽이 교무금 미납신도 신도증, 오른쪽이 교무금 납부신도 신도증이다.

전국민 스마트폰 활용시대를 맞아 조계종 포교원이 조계종 공식 신도증을 모바일로 개발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들의 종단 소속감 증대와 신도증 소지의 간편함을 위해 개발된 '모바일 신도증'을 공개했다.

이번 모바일 신도증에는 기본적인 신도정보는 물론 교무금 납부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또 종단과 사찰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푸쉬 기능을 통해 각종 사안이 알림으로 전해진다.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은 기존 신도 번호가 부여된 신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신도증'을 검색하여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앱 설치 후에는 생년월일과 이름, 신도증 발급시 등록된 법명 등을 기입하면 기존 신도증이 모바일로 탑재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모바일 신도증을 통해 조계종 종도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무금 납부를 비롯해 종단 정보사항의 신도 전파를 기대하고 있다. 교무금 납부 신도의 경우 신도증 배경색이 당해연도 납부증 스티커 색으로 반영되어 미납 신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문화재 관람료 사찰 입장료 할인 등 혜택 사용이 가능하다.

조계종 포교원은 모바일 신도증 보급을 통해 향후 여러 가지 신행활동도 지원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윤성 스님은 "종단 안팎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모바일 신도증을 통한 신도 정체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시대에 맞춰 종단 차원에서 신도증을 비롯한 신도지원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사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신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모바일 신도증의 보급과 활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2022년 신도들의 신도증 사용 편의성과 정보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신도증 앱 개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오투아이와 개발에 들어가 2022년 12월 앱 제작을 완료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 종합보고서 제작

민추본, 남북 연계 순례길 제시
불교문화연구소 함께 성과 담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가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의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 '金剛山 평화순례길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민추본이 2022년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이하 연구소)에 연구사업을 의뢰해 제작했다.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로 수많은 고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예로부터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방문했고 그에 따라 철원, 양구, 고성 등을 통해 금강산으로 향하는 다양한 옛길이 발달했다. 이에 민추본은 이러한 금강산 옛길을 조사하고 발굴해 오늘날 남북을 잇는 평화순례길로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다. 민추본은 봉은사의 후원을 받아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번에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금강산 옛길 관련 문헌 분석과 활용방안을 주 내용으로 2021년과 2022년 학술세미나 발표자료를 담았다. 여기에 금강산 고지도 및 옛길 관련 지도도 함께 수록했으며, 마지막으로 기록을 통해 활용해 볼 만한 금강산 순례길을 제시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양한 경로의 금강산 옛길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특위 "종교편향 공수처장 퇴진하라"

1월 17일 과천종합청사서
공수처장 공개 면담 요구
불발 이후 피켓시위 진행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진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1월 1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특위 위원 법원·종원·설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들 스님들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공개 면담을 요구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1시간여의 대치 이후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님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선광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시무식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며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은 공직자이자 사정기관 장으로서 명백한 종교편향"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2023학년도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동화사 승가대학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는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실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사미스님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 **모집기간** : 불기2567(2023)년 4월 7일까지
- **특 전** : 1) 월 보시금 및 소임비 지급
  2) 성운대학교 사회복지과 수학 지원 (학기당 장학금 지급)
  3) 해외 성지순례(사집반, 대교반)
  4) 모든 신입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급
  5) 전 강의실 에어컨 완비 및 책·걸상 구비
  6) 주 2회 병원 외출 허용 (+ 대구 시내 접근성 편리)
  7) 주 1회 체육운력 시행
- **문 의** : 승가대학 : 053)980-7925
  학감 여운스님: 010-7626-5558

※ 타 종단 스님 수강 가능

율학승가대학원

팔공총림 동화사에서는 교단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율사 양성의 원을 세우고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시대정신을 수용한 종헌 종법에 정통한 율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에서 불기 2567(2023)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전문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모집인원** : 개방형 00명, 상주형 0명
- **자 격** : 1) 기본교육기관은 졸업하고 비구계(타종단 가능)를 수지한 자.
  2) 불기2567(2023)년도 봄 비구계 수계예정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홈페이지)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율원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 **등 록 금** : 1학기당 400,000원(개방형 전문반 학인에 한함)
  ※ 사중거주 학인은 등록금 면제
- **모집기간** : 불기2567(2023)년 3월 22일까지(서류제출)
  갈마 면접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 비로전 율원
- **신청방법** : 율학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980-7955,980-7983 율감 010)5665-5010.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대학원장 **현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가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에서는 2023학년도 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종단의 대 강백을 모시고 2년의 교과과정을 개강하오니 스님들과 재가 신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스님 : 비구, 비구니(타종단 스님 수강 가능)
  재가자 : 5계를 수지한 신도
- **학 제**
  1) 학 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년 2회 2박3일 특강
  2)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8시
  3)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 (대구시 중구 문우관길 65)
  4)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수료자 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 **교과과정**

	과 목	강 사	특 강
1학년1학기	법화경	선지 스님	1차 : 미정
			2차 : 미정

- **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년 1월 1일 ~ 3월 25일
  장소 :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사무처
  문의 : 053)252-3445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3)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강일자** : 2023년 3월 6일(월요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전화** : 053)980-7900 **홈페이지** : www.donghwasa.net

신흥사·낙산사 등 설맞이 자비나눔 잇달아

신흥사, 속초시에 2억 원 쾌척
낙산사, 양양군에 1억5천만 원

속초·양양=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흥사는 1월 16일 속초시청에 저소득층을 위해 2억 원을 전달했다.



낙산사는 1월 17일 양양군청에 1억 5000만 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을 기원했다.

속초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등 3교구 사찰 주최로 자비나눔 행사가 잇달아 열려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자비나눔 성금 전달식'에서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속초시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써달라며 2억 원을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기탁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자비나눔을 지속 실천해 온 신흥사의 이번 성금 전달은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신흥사 대중스님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드리고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 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비가 온 세상에 펼쳐지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귀중한 설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를 계기로 속초시민들과 함께 소통 화합하고 또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타의 마음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매진해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함께 참석한 김종명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장도 "무산 오현 스님이 계실 때부터 매번 신흥사가 앞장서 저희들까지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속초시는 이번 신흥사의 자비나눔 2억 원 기탁으로 관내 저소득세대 1천 세대에 김세트를, 독거어르신 1540가구에 명절 위로금 5만 원씩을 각각 전달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 14곳에 노트북을,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통해 관내 경로당 95곳에는 무선청소기를, 다문화가족을 위해 속초시가족센터에 3천만 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흥사는 매년 자비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후원품을 전달해 왔다. 속초시 취약계층에게는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재 환수기금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금 2억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한 바 있다.

양양 낙산사의 '설맞이 자비나눔'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낙산사 주지 청현 스님 등은 1월 17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돕기 위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김진하 양양군수 등에게 전달했다.

낙산사는 이번 계묘년 설을 맞아 차상위계층 723세대에 3천만 원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양양군의용소방대, 양양군자율방범대, 양양군새마을부녀회, 양양소방서, 환경미화원, 군 장병 등에게 텀블러, 과일, 김세트, 컵라면, 햇반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했다.

낙산사 주지 청현 스님은 "낙산사의 설맞이 자비나눔은 은사이신 설악 무산 대종사께서 생전에 강조하신 주변 어른들과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항상 내 가족같이 보살피고 함께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들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등 앞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더 늘렸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우리 관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인 낙산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찰"이라며 "오늘 후원해 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지역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설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후에는 육군 제56보병사단 호국백운사에 군법당 불사 지원금 1000만 원과 속초경찰서 직원 자녀 장학회인 무궁화 장학회에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우수 녹색사찰 선정

불교환경연대, 1월 11일 시상식
부산 도림사, 울산 벽련사도 선정

안양 한마음선원이 불교환경연대가 시상하는 2022년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월 11일 온라인으로 제5회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대회를 진행하고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솔)과 부산 도림사(주지 정찬), 울산 백련사(주지 원경)를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했다.

이날 녹색사찰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녹색사찰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녹색사찰 실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된 안양 한마음선원은 협동조합 지구사랑작은실천을 운영, 교육을 통해 대중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유용미생물군(EM)을 널리 보급, 수질정화에 힘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모습이 귀감이 됐다는 평이다.

부산 도림사는 보자기를 이용한 천주머니 제작 나눔, 신문지 봉투 사용, 한지등 달기, 인근 사찰과 단체에 환경교육 실시, EM발효액 이웃 나누기, 도심숲공원환경정화캠페인 지속적 실시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귀감이 됐다.

백련사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 매월 환경법회 개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전환 기여,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녹색사찰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불교기후행동에서 지구의날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환경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11개 신규 녹색사찰과 협약, 현재 총 43곳과 함께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녹색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사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법회와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부처님 생명존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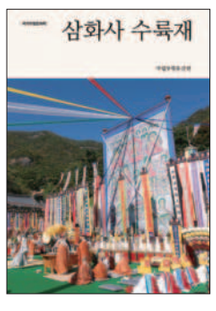
삼화사 수륙재 모든 것을 기록하다

국립무형유산원 '삼화사 수륙재' 백서 발간

수륙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그들의 외로운 넋을 건지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불심으로 기원하는 불교의례이다. 수륙재 외에도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은 있으나 그 대상을 개인이 아닌 세상 모든 외로운 존재들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륙재에 초청되는 존재는 불보살부터 외롭게 죽은 영혼까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수륙재는 무차대회라고도 불린다. 수륙재는 고려시대부터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수난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구체적인 목적 등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설행돼 왔다.

이런 가치가 인정돼 수륙재는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를 포함한 3개의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최근 〈삼화사 수륙재〉를 발간하고 수륙재의 의의와 역사, 설행의 과정, 삼화사 수륙재의 특성과 전승 현황, 그 가치를 기록해냈다.



수륙재의 수륙은 일차적으로는 물과 뭍을 의미하며 이는 천상과 지상, 명부까지 포괄하는 온 우주를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원을 들어주는 대상과 기원의 대상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수륙재의 별칭인 무차대회의 무차별과 함께 의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삼화사 수륙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시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천도의 대상으로 초대되는 이들이 자리하는 하단에 놓인 감로탱화에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현장과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단의 불보살부터 하단의 유주무주 고혼에 이르기까지 관욕이 행해지며, 방생의식이 주요 절차로 다뤄지는 것과 재가 신도의 동참도 삼화사 수륙재의 중요한 특징들이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수륙재의 유래와 역사, 의식문과 그에 따른 절차가, 2장에서는 삼화사 수륙재의 역사와 구조가 기술돼 있다. 3장은 삼화사 수륙재의 설행을 의례와 범패, 작법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했다. 4장은 3장에서 살펴본 설행 과정을 바탕으로 삼화사 수륙재의 특성을 의례, 범패, 작법무로 나누어 기록했다. 5장에서는 삼화사 수륙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경위와 전승현황 및 전망과 가치에 대해 다뤘다. 전승현황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수륙재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보존회의 역할 및 전승 내용이 담겨 있다.

책의 집필은 본지 필진인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과 손인애 동국대 한국음악과 외래교수, 강석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강인숙 경상국립대 민속무용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WISE캠 日대학·불교협력 확대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WISE캠퍼스 국제화 및 건학위원회 불교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방일해 일본 도쿄 도시대학, 시즈오카복지대학과 사찰을 방문했다. 이 총장은 일본 시즈오카복지대학과 학술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도쿄도시대학과 글로벌 고등교육 자원 공유 및 혁신 콘텐츠 교류를 논의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중점 사업인 '불교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즈오카현 핫타산 손에이지(法多山 尊永寺)와 조동종의 성찰인 카스이사이(可睡斎)를 방문해 주지스님 면담을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불교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시즈오카대학과 MOU를 맺고 있는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사진 오른쪽).

2023년 정월·음력 2월 윤달

1월 22일 ~ 2월 19일 · 3월 22일~4월 19일

해인사 성지순례

불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인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불교의 삼보(三寶)라고 일컫는 佛(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法(팔만대장경), 僧(희랑대사상)을 국보로 보유한 최초의 사찰입니다.
해인사에서 국보로 나투신 삼보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복되고 희망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순례 특전 (단체)신청시–일주문에서 장경판전까지 내부관람 (스님의 안내 설명. 공양 제공) ※ 사전 단체접수에 한함


佛 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국보)


法 팔만대장경(국보)


僧 희랑대사상(국보)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 148명에게 떡만둣국 재료 꾸러미를 전달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서울소재 무료급식소에 독거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 예방물품을 후원했다.



설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8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아 떡국 배식 봉사를 했다.



서구노인복지재가노인지원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겨울이불과 식료품 등 한파예방키트를 전달했다.



조계사는 1월 16일 떡국 떡과 국수 등이 담긴 명절 선물세트 500상자를 종로구청에 전했다.

“설 앞두고 나누는 자비, 함께하는 福”

설날 앞두고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

불교계, 다채로운 명절맞이 눈길
진우 스님, 1월 18일 탑골공원서
떡국 배식 “자비 나눔 이어 갈 것”
조계사, 관내 500가구에 명설선물
복지관에선 친목 강화 프로그램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따뜻한 떡국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나세요.”

설날을 앞두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나섰다.

진우 스님은 1월 18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아 무료 떡국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눴다.

이날 배식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자비나눔 무료급식 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호산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사무처장 해공 스님,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 조계종 전국 불교연합합창단 지부장들이 동참했다.

진우 스님은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음식을 담아 전하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원한 이날 점심공양 메뉴는 떡만둣국. 멸치국물에 계란지단까지 올려 한 끼 식사로 든든할 뿐 아니라 영양소까지 골고루 갖췄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무료급식 행사가 벌써 2년 차를 맞이했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고 동참해 준 덕분에 자비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급식을 받은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부터는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마음을 내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고자 한다”면서 “오늘 준비한 떡국 맛있게 드시고 추위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배식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동참자들은 배식뿐 아니라 설거지와 주방 청소 등 마무리까지 말끔하게 끝내며 배식봉사를 훈훈하게 마쳤다. 진우 스님은 배식 봉사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겨울 양말과 떡, 두유가 담긴 선물 봉투를 일일이 전달하기도 했다. 선물 봉투를 받아 든 어르신들은 진우 스님에게 합장인사를 하며 연거푸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어르신에게 전달된 양말은 2000족에 달한다.

진공심 전국 불교연합합창단회장은 “최근 농어촌 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지 고민하다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리게 됐다”면서 “떡국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양말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날을 맞아 불교계에서는 우리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의 정을 전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저소득, 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하고, 떡국 등 명절음식을 대접하거나 세뱃돈 봉투를 제작해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종로구 관내 소외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조계사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은 1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2023 행복한 떡국나눔’을 열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에 명절 선물세트 500상자를 전달했다. 상자에는 떡국 떡 1kg을 비롯해 사골국, 컵밥 등 즉석식품, 참치캔, 초코과자, 국수, 음료, 세면도구 등이 담겼다.

전달식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조계사가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파에도 늘 몸도 마음을 챙겨 건강한 설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물을 받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매년 종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조계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종로구청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1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은 종로구 관내 17개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450가구와 장애인 단체 50곳 등 총 500가구에 전달됐다.



진우 스님이 선물봉투를 건네자 노보살이 합장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서울 영화사가 지원 운영하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신재원)은 1월 18일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광진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이날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어르신 87명을 초대, 문화공연과 설맞이 민속놀이, 명절선물 키트 등을 지원했다. 명절선물 키트는 떡국떡과 과일 등으로 구성,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제공하고자 했다.

신재원 관장은 “민족 명절 설날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는 날이지만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모이는 가족 및 친지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서적 지지체계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또 지역사회 어린이집과 연계, 광진구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두 만들기,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고 1·3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해 친목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함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대호)은 1월 18일, 연수1동 지역주민에게 설 선물 꾸러미를 전하는 ‘幸복한 설날, 福 받으세요’를 진행했다.

복지관 직원과 사나레 봉사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 148명에게 떡만둣국 재료와 라면, 과일, 모듬전, 마스크, 방한용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고 명절인사를 전했다. 또 설맞이 덕담나누기를 통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설 선물 꾸러미를 받은 한 주민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챙겨줘서 이 마을에 사는게 행복하고 든든하다”며 감사 마음을 표현했다.

천태종 산하 NGO **나누며하나되기**(총재 무원)는 서울소재 무료급식소에 코로나 예방·생활용품을 후원하며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1월 17일 신림역 사랑의집 무료급식소, 영등포 쪽방촌 도우미,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회, 사회복지 원각 노인무료급식소, 탑골공원 노인무료급식소에 코로나19 방역·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덴탈마스크 10만 장, 손 소독제 5000개, 살균 유취제 5000개, 습기 제거제 5000개, 알콜 티슈 1만 개로 노숙자와 취약 독거어르신 등을 위해 사용된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천사무료급식소 측은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설날 명절선물”이라며 “용품도 잘 전달하고 따뜻한 밥상도 이어,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재가노인지원센터(관장 진재란)는 1월 16일 서구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한파예방키트를 전달했다. 키트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이불과 장갑, 겨울덧신,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센터 측은 키트전달과 함께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 수칙들을 전달하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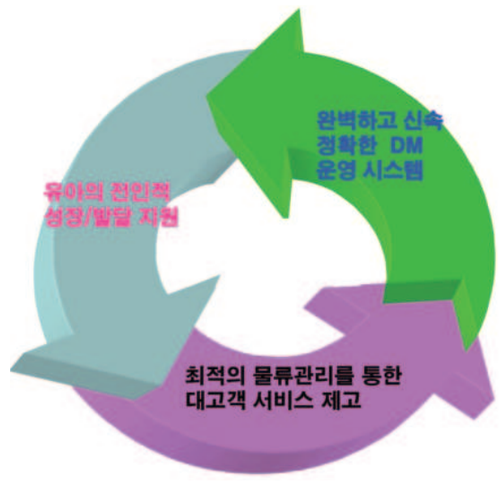
관장 진재란 스님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3일
기독신문이 동봉된 오배송으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생명나눔부산, 공감기부 프로젝트 점검

1월 17일 국제신문서 간담회 열고
1년간의 성과 점검과 새출발 다짐

환우 사연 공개하고 댓글 창 운영
부산은행 월 기본 100만 원 전달
공감댓글 한 개당 1000원 기부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생명나눔부산은 1월 17일 국제신문 사장실에서 '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 캠페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생명나눔부산)가 1월 17일 국제신문 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감기부 프로젝트-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캠페인' 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이영숙, 복춘희 이사를 비롯해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이노성 편집국장, 오상준 미래전략실장, 최영지 독자여론부장, 이기영 부산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 김지근 부산은행 사회공헌홍보부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공감기부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BNK 부산은행과 국제신문에 감사하다"며 "공감기부프로젝트는 이 시대 문화를 반영해 기부문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난치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캠페인' 은 난치병 환우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고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댓글을 적으면 기부가 되는 방식이다. 사연에 공감한 시민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적으면 댓글 횟수에 따라 치료비가 늘어난다. 기부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내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국제신문이 공동기획해 플랫폼 운영과 사연 안내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부산은 매월 2명의 환우를 선정하고 국제신문은 환우들의 사연을 매월 2, 4주 금요일 국제신문 사람 & 이웃 면에 게재해 안내한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사연을 담은 기사를 올리고 댓글 창을 운영하고 기부한다. 부산은행은 매월 기본 100만 원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시민의 공감 댓글 한 개당 1000원씩 기부금을 늘린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2015년 5월부터 시작해 총 158명의 환자에게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24명의 환자에게 2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해 1월 첫 번째 공감기부는 상세불명 뇌전증을 앓고 있는 박원우(10세, 가명) 어린이 사연이 소개됐다. 박원우 어린이는 만2세 당시 짧은 경련이 있었고 이후 잦은 발작과 경련을 겪었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진단받았으며 언어 지연 및 ADHD 증상도 함께 겪고 있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만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기부는 http://www.happybnk.co.kr/ 공감기부 프로젝트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신년하례식 봉행

대웅 스님 등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불기 2567년 신년하례식 및 종정예하 사바강탄 72세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월 15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각황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은 총무부장 도연 스님의 사회로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원산 스님 인사,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 선왕 추대기 및 옥새전달, 신년하례, 청법게, 입정, 법어,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능인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여러분 마음은 부처로 만들어져 있다. 부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 그 마음을 찾아서 평생 참다운 부처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속의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번뇌 속에 인간의 탈을 쓰고 고통 속에서 살겠지만 그 번뇌를 벗어나 마음속을 비워 108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석능인 종정예하 사바강탄 72세 기념과 문도스님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세계불교교황청이 발전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불교교황청이 되어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창립기념법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한 도법 스님과 설송 스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 새해 임원에 선임된 부종정 대웅 스님, 포교원장 설송 스님, 승정원장 운봉 스님, 총무부장 도연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또 작년 4월에 룸비니 동산에서 선왕으로 추대된 문도스님 중 운봉 스님에게 교황청기 및 옥새가 전달됐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은 능인문도 대웅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승한 인연을 함께한 공덕으로 오교삼장 일대 시교를 거울로 삼아 수행가풍을 세워 도제양성교육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가피를 내려 달라"며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낱낱이 모두 성취되어 마침내 무상보리를 이루어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아나갈 것"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는 교황청장 석능인 대승통, 능인문도 석대웅 스님, 전권대사 운봉 스님, 총무원장 원산 대승정, 만불정사 도연 스님, 금강사 청명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설맞이 자비나눔

설맞이 '용福만福 용호福' 개최
떡 등 선물꾸러미 지역민 전달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1월 19일 복지관 내에서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용福만福 용호福'을 개최했다. 사진은 내빈들이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1월 19일 복지관 내에서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용福만福 용호福'을 개최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고 풍성한 새해를 기원했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떡국떡과 오곡세트, 김, 약과, 유자차, 과일 등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지역민에게 전달했으며, 용호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세배와 축하공연, 설맞이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 서은해 관장을 비롯해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족들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소박한 선물이지만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오늘 선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은해 관장은 "오늘 전달하는 선물은 후원자님들의 정성을 가득 모았다. 행복꾸러미라는 이름처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눌러 담았다"며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은 1월 13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엠에스코리아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마스크는 엠에스코리아(대표 손희만)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안정하)가 지원했으며 KF94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방역물품 후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한창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에 비해 방역물품과 관련된 후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가정방역 및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한 마스크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선정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설 한파 녹이는 나눔 행사

떡국떡·강정 등 400세대 분 전달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월 17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미소원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를 기원하며 100만 원 상당의 떡국떡과 강정 100세트, 총 400세대 분을 마련했다. 선물은 수정5동행정복지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신선한 떡국떡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에 떡국을 받아 포장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추가로 넣고자 정성을 다했다"며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누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니 미소원의 마음을 잘 전달 받으셔서 미소 짓는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은란 수정5동행정복지센터장은 "미소원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소원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설날을 보낼 것 같다"며 "이사장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떡국떡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미소원은 2011년 11월 11일 설립한 재가 봉사단체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신행상담과 국립마산 결핵병원 후원, 무연고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명절음식(떡국떡, 강정) 지원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JTS 인도 불가촉천민 지원, 우물파기 등 해외 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도시락 250여 개 어르신들에 전달
대중 후원 7년째 무료급식소 운영
마가 스님, 성금 200만 원 등 후원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사장 홍수승, 센터장 안정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법회 및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사장 홍수승, 센터장 안정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법회 및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과 회관입구에서 열린 이날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는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 센터장 안정임, 경남포교사단부단장,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옥천사 여명회, 오미숙 보리팀 포교사팀장 등 지역포교사, 김동호 장애인협회 사무국장과 회원, 구영석 비봉로타리클럽 대표, 이성필 서경로타리클럽 대표, 성북동 사회복지사 회원,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이 동참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오리훈제야채볶음, 오이무침, 양념두부, 김치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 250여 개는 진주불교회관 입구에서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거동이 불편한 30여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특히 마가 스님과 전국자비명상회원, 옥천사 여명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 원과 백미 10kg 10포, 바나나, 밀감을 후원했다.

안정임 보현의 집 센터장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 포교사분들이 후원해 주어 매주 수요일 마다 어르신들에게 250~300여 분의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마가 스님께서 진산식을 대신한 마음약방 콘서트로 법회와 지역불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며 후원하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후 옥천사 주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도 나눔을 하고자 일부 남겨둔 200만 원과 쌀 10포를 가져왔다"며 "상구보리를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과 하화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진주불교회관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에게 힘을 줘야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했다. 오늘을 계기로 옥천사 신도들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무료급식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운영이 보류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재개됐다.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은 진주불교회관 중창불사의 초석을 놓았고 최근 입적한 사천 평안사 보선 스님의 '정심보선' 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다. 불자들의 1인 1만 원 CMS 후원과 스님들의 보시, 지역봉사 단체들의 자원봉사와 물품 보시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현의집은 보시된 물품 및 보시금을 어르신들과 노숙자, 장애인의 점심공양, 장애인 장학금등 어려운 이웃 등 여러 곳에 회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자비나눔

성금 300만 원·백미 4000kg 전달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1월 17일 부산남구청 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웃돕기 자비나눔은 새해 설날을 맞아 지역 내 소외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성금 300만 원과 백미 4000kg을 전달했다. 성금 및 성품은 부산 남구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 소외이웃 및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부회장 능후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과 오은택 남구청장, 박화자 문수사 신도회장,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김두찬 부산남구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원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지역 내 경제 침체로 소외 이웃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며 따뜻하게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매년 남구불교연합회는 따뜻한 후원으로 지역민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광역시 사암聯·종단聯 신년 간담회 개최

사암聯·종단聯, 울산불교 지역발전 기원
1월 1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담회 열어
숙원 울산 차문화 다도성지 건립 추진,
울산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이전 등
울산불교 연중주요행사·사업 보고 논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및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불기2567년 계묘년을 맞아 울산불교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울산불교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1월 17일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축원, 신년하례, 내·외빈 소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인사말, 신도회장 인사말, 수석부회장 인사말, 울산광역시장 인사말, 2023년 울산불교연중행사 주요사업보고, 사홍서원, 폐회,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울산 차문화 다도성지 건립 추진과 울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울산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의 이전 봉안 등 2023년 울산불교계의 연중행사와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및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가 불기2567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여선원 효암 스님은 2월 5일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대법회(태화강 국가정원일원), 5월 12~14일(3일간) 부처님오신날 봉축 태화강 연등축제(태화강 둔치 일원), 9월 울산종하체육관에서 자비도량 참법 5일기도법회, 10월 제12회 전통 음식문화한마당, 10월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11월 제14회 울산 차문화한마당(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 12월 제22회 무루음악회(롯데호텔 울산 대연회장) 등 울산불교계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했다.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5년 정도 됐고 불자가 30만이 넘지만 이렇다 할 거점 사찰이 없어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을 다도성지와 태화사지, 태화사지 십이지신 사리탑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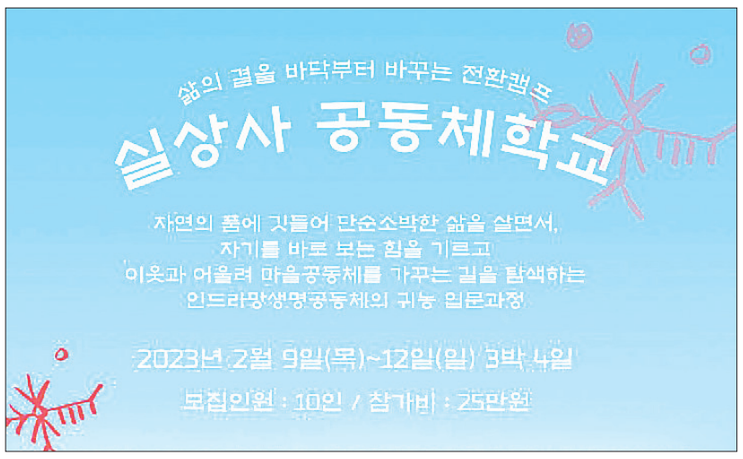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의 지혜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울산불교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 불교계의 숙원사업은 태화사지의 복원과 차문화성지의 조성으로 알고 있다.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창달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며 "태화사에 대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차 문화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울산조계종사암상임자문위원장 정토사 덕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월봉사 보화 스님, 종단연합회상임부회장 정관암 대활 스님, 부회장 벽선암 혜진 스님, 부회장 신흥사 종현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지역스님, 이병호신도회장, 이영수수석부회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진희 교육대학총동문회장, 허유리 울산불교여성회장등 각 신행단체임원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실상사 마을 공동체학교' 열린다

귀농귀촌 대중교육프로그램
2월 9일부터 12일 남원 실상사서
생태적 삶·귀농 귀촌 등 교육
매월 1회 셋째주 목~일에 운영



1998년 창립하여 20년간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대안교육, 생활협동조합 등 생명평화운동을 이어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가 9년 만에 귀농귀촌 대중교육프로그램인 실상사 마을 공동체 학교를 개설한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실상사 공동체학교는 귀농교육의 산실이었던 실상사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마을공동체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태적 삶, 귀농귀촌, 마을공동체운동 등을 배우고 익히는 3박 4일간의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사, 건강한 먹거리, 자기를 돌보는 명상, 마을공동체탐방, 목공체험, 귀농귀촌선배와의 대화, 도법 스님과 차담, 경청의 대화법, 공동체 워크숍 등이다.

실상사공동체학교는 매월 1회 셋째주 목~일요일 운영될 계획이며, 입문교육 이수자들을 위해 추후 농사, 마을공동체, 먹거리(발효), 명상, 수공예 등 전문분야별 심화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드라망 관계자는 "자연에 깃들어 단순소박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바로 보는 힘을 기르고 이웃과 어울려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인드라망 홈페이지(http://www.indramang.org) 인드라망 사무처 전화(02-576-1886)이다. 모집기간은 2월 3일(금)까지이며 참가비(3박 4일 숙박, 프로그램 비용 포함)는 25만원, 모집 정원은 10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풍물단 파드마 창립



1월 14일 광덕사서 창단식 개최
풍물 통해 부처님말씀 널리 알려
법회·교육·공연 등 활동계획

"풍물이라는 인연으로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겠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산하 풍물단 '파드마'가 창단했다. 풍물단 파드마는 1월 14일 광주 주월동 광덕사(주지 상진)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단한 파드마는 "풍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문화포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도성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상진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을 비롯해 파드마 회원 15명과 신행단체 100여 명이 참여해 창립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도성 스님은 "사찰에서는 매일 사물을 울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 풍물의 다양한 악기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파드마 회원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새로 지도법사를 맡게 된 상진 스님은 "파드마는 연꽃을 뜻하며, 붉은 연꽃을 상징하는 불교용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며, "연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풍물단 단장을 맡은 손화자 단장은 회원소개에 앞서 "앞으로 불교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공연,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진 공연에서는 화엄사빛고을포교원 합창단, 생황연주(신선민), 남도장구(한사랑예술단), 진도북춤(정정순) 등이 공연으로 파드마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창립한 풍물단 파드마는 지도법사 상진 스님을 비롯해 단장 손화자, 기획 김동렬, 총무 백권, 단원 채미선, 김주현, 우문순, 우남일, 라선욱, 유송일, 박상호, 박정숙, 김재식, 유성대 회원 등이 참여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기법회와 교육(교육지원, 연합교육, 대중강습, 전문강습), 공연, 타 불교단체와 연대활동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32기 졸업식 개최

1월 15일 졸업생 24명 배출
박재현, 조계종 포교원장상



익산지역 유일의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32기 졸업식를 봉행했다.

1월 15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송동기 부학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주용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 최형수 익산마한거사림회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다. 고순자 불자 등 24명의 불자들은 조계종 신도기본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의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재현 불자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학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덕림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실참을 통해 주인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봉사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가진 졸업생들은 후학양성을 위해 이리불교대학 후학양성기금을 학장 덕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리 불교대학은 지난 1991년 설립된 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불자들을 배출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어울림한마당'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 및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명절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계묘년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했다.

1월 18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입춘방 나눔, 실버차 나눔봉사단의 차나눔, 윷놀이 및 고리던지기 등 참여한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명절인사와 깜짝 공연을 선보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떡국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이 담긴 복 꾸러미도 전달했다.

이날 설 명절행사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은 "신나는 시간도 보내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은 "새해 첫 명절을 기념해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고 어울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복지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중 독거 및 고위험 어르신 150명에게 떡국 및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관음사, 이웃위한 자비의 쌀 나눔

백미 350kg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익산 금강동 관음사(주지 정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

익산 금강동 관음사 주지 정수 스님과 신도들은 1월 12일 백미 350kg을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비의 쌀은 지역 저소득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정수 스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백미를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사는 3년째 백미를 기탁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성이 이어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주지후보 추천 산중총회

2월 13일 오후 1시 선운사 성보박물관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주지후보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묵)는 오는 2월 13일 선운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산중총회의 구성원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등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3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까지이며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전진대회 개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강윤구)은 1월 14일 영암 도갑사 대웅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포교 氣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 광주전남포교사단 지도법사 무인 스님(송광사 포교국장), 송강 스님(백양사 포교국장), 덕명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설중 스님(대흥사 포교국장) 스님, 수관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단 김영석 중앙단장, 강윤구 지역단장,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포상, 임명장 수여, 법문, 마애부처님 참배 등을 진행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불교조직이 포교사단"이라며 "한국불교 지킴이가 포교사이다. 이제 대한민국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전국적으로 명상센터 건립과 함께 명상포교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새해 포교의 중심사업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수관 스님은 환영의 말을 통해 "계묘년 새해에는 큰 원력을 세우면 상근기로 갈 수 있으며, 불국토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강윤구 단장은 인사말에서 도갑사의 창건주인 도선국사의 탄생 유래와 영암에서 불교왜곡을 비판하며, "우리는 불교 포교를 위해 포교사가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살면 결국 포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날마다 절에 가고, 날마다 보시를 하자"고 다짐했다.

2022년 포교활동에 기여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포교사단 총재상에 정환근 포교사, 포교사단장상에 김홍길, 장치호 포교사가 각각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승가 첫 비구니 수계

첫 비구니 스님 6명 탄생
지난해 10월, 계단 건립
율장 근거 역사 한획 그어
비구니교단 출범 10년만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에 세워진 비구니 계단에서 탄생한 비구니 스님들(단상아랫줄).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방글라데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았던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승가에 비구니 승단이 부활한 것이다.

1월 13일, 국제 불교 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방글라데시 불교계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20일, 방글라데시 남부의 차토그람에 소재한 담다마 비구니 사원에서 6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비구니 구족계를 받았다.

이번 수계식을 위해 비구니 승단의 복원을 지지하는 비구 스님들과 앞서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아온 비구니 스님들은 율장에 근거하여 사원 안에 새로운 계(界)를 세우고 계단을 건립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현대 불교사에 최초로 율장에 근거하여 비구니 승단이 머물 계와 비구니 수계를 위한 계단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다. 이번 수계식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방글라데시 출신이며, 구족계를 온전히 수지하기 위해 몇 년동안 광범위한 경장과 율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계식에서 전계사를 맡은 대장로 와라삼보디 스님은 "이번 수계는 비구니 승단의 부활을 위해 고행을 견뎌온 선배 비구니, 장로니 스님들의 덕이다. 특히 담다마 사원의 설립자인 고타미 스님은 타국이 아닌 방글라데시에서 비구니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전과 문헌들을 벵골어로 번역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며 방글라데시에 비구니 계맥과 승단이 복원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 테라와다 비구니 승가 연합의 타탈로카 장로니 스님 역시 "이제 또 한 나라에서 비구니 수계식을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비구니의 탄생이 어려웠던 나라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출신의 장로스님이 나서서 비구니계를 주고, 이부승가가 온전히 갖추어진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비구니 승단의 탄생을 축하했다.

방글라데시의 여성출가자 공동체는 오랫동안 자체적인 비구니 승단의 부활과 운영을 위해 많은 난관을 거쳐 왔다. 지난 2013년 처음 자체적으로 사미니 교단을 출범하였고, 당시 20여명의 여성 출가자가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방글라데시 최고 승가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사의 반납과 교단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미니 스님들은 스님들을 지원하는 재가신자들과 비구스님들의 외호 하에 인고의 시간을 버텼고 2016년 6명의 사미니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아 오면서 최초의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비구니 승단이 탄생했다. 국제적으로도 방글라데시 비구니 승단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이러한 강력한 지역 및 국제적 지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니 승가는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완전한 구족계의 수계는 팔리어 불전에서 말하는 온전한 비구니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오랜 여정에서의 긍정적인 첫 단계다. 드디어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교단에 온전한 사부대중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계식이 성사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고타비 장로니 스님은 "앞으로 탄생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비구니 교육시설이 갖춰진 스리랑카로 유학을 보낼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다른 비구니 스님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장래계획을 전했다.

일본 고찰, VR로 극락정토 구현

센쥬지, 종조 탄생 850주년 맞아
불경 내용 360도 화면으로 제작



센쥬지에서 시험공개중인 VR 극락정토.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불경 속에 묘사되는 극락정토의 모습이 360도 VR로 구현됐다. 일본 미에(三重)현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고찰 센쥬지(專修寺)가 최근 VR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으로 불경의 내용과 사찰의 풍경을 담아내 화제다. 지난 1월 11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야후재팬 뉴스' 등은 센쥬지의 VR에 대해 보도했다.

15세기에 세워진 센쥬지는 미타신앙과 염불수행을 종지로 삼는 일본 정토진종의 본산 사찰중 한 곳이다. 센쥬지는 최근 "5월, 종조인 신란(親鸞)대사의 탄생 850주년을 맞이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VR을 이용하여 360도 화면을 통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시설은 센쥬지가 소장한 국보와 성보문화재들을 보존 전시하기 위한 보물관의 재건축과 함께 부속시설로 마련된 것으로 건물내부의 6면에 세로 4m, 가로 6m 대형 화면을 설치하여 '육각당(六角堂)'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센쥬지 측은 "VR을 통해 불경에 등장하는 극락세계의 모습과,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왕생의 모습을 재현하여 극락의 연못에 있는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영상의 이름은 'OJODO' 로 일본어로 정토를 뜻한다. 현재 시범영상이 완성되어 오는 2월 중순까지 대중에게 공개된다. 현재 공개중인 영상에는 극락정토의 전체 모습 중 일부만이 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경내의 건물이나 회화, 조각 군을 드론과 입체영상으로 촬영하여 역시 직접 체험하듯이 볼 수 있는 VR영상 'SENJUJI 360' 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보물관의 재개관과 함께 영상의 최종 버전과 육각당 시설이 공식으로 공개되면,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육각당 내부에 들어가 스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극락정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센쥬지 측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VR로 보여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사찰에 발걸음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인도 불교 유적이?

훔볼트 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산치' 복제품 전시

독일 · 인도 조각가들 합작품
생명체 대한 연민 · 자비 구현



박정현 객원기자독일 베를린에 등장한 '산치' 의 문. 사진출처=DW

독일 베를린에 새로운 광경이 포착됐다. 인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치' (Sanchi)의 문이 등장한 것. 인도에 있어야 할 산치의 문이 베를린 한복판에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1월 16일(현지시간) DW 등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에 위치한 훔볼트 포룸 박물관(Berlin's Humboldt Forum museum)은 관내 야외공간에 '산치' 의 일부를 그대로 재현한 복제품을 전시했다.

DW는 "훔볼트 포룸 박물관 단지에서 고대 인도의 웅장함이 목격됐다"며 "산치의 복제품이 세밀하게 제작돼 과거 베를린궁전이었던 아시아미술관 인근 야외공간에 전시됐다"고 설명했다.

산치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있는 불교 유적으로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대왕이 조성했다. 고대 인도 최대의 스투파 유적으로 꼽힌다.

약 160만 유로를 들여 건축된 해당 전시품은 독일과 인도 조각가들의 합작품이다. 바이에른 인근 도시에서 채석된 붉은 사암을 사용했고 무게 약 150톤, 높이 10m, 너비 6m에 달한다.

세 개의 대들보와 두 개의 기둥에 부처님 일생을 조각화했다.

베를린 주재 인도 대사 해리쉬 파르바탄네니(Harish Parvathaneni)는 "베를린 중심부에 산치의 일부를 재현한 복제품을 설치한 훔볼트 포럼 박물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 전시품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부처님의 연민과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구현해 인정받을만하다"고 기뻐했다.

또 박물관 관계자는 "인도와 독일 간 긴밀한 관계의 상징"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박물관은 추후 산치의 문 복제품 옆으로 또 다른 산치 유적의 일부인 청동 모형 복제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프레데릭 대제의 왕궁을 재건해 2020년 개관한 훔볼트 포룸 박물관은 21세기 독일의 최장기 문화 프로젝트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를린 국립민속박물관과 동아시아박물관이 훔볼트 포룸으로 이전, 다양한 동아시아권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개관 초기 1897년 영국군 병사가 나이지리아 에도 주의 베닌 시티에서 훔쳐 온 청동 조각상 등을 포함한 약탈 문화재 2만여 점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스리랑카, 달라이라마 방문 막아라"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 시암 니까야 종단 찾아 경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유라시아리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스리랑카 방문설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1월 17일 유라시아리뷰 등 외신은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관인 후웨이(Hu Wei)가 최근 시암 니까야(Siam Nikaya) 종단의 말와투 지부 마하나야케 테로(Mahanayake Thero)를 찾아 달라이 라마의 스리랑카 방문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리랑카의 방송 매체에 출연해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 스리랑카의 외교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또 다시 스리랑카 정부를 공개 압박한 것이다.

후웨이는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와 추종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수도승이 아니"라며 "1951년 중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티베트에서 군림하던 봉건적이고 신권적인 체제의 수장이자 분리주의자"라고 열변했다. 또 "달라이 라마는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정치적 망명자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후웨이는 아울러 "중국과 스리랑카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중국과 스리랑카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말와투 마하나카야마 테로는 "스리랑카 정부와 불교계는 스리랑카 경제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성파 스님 옻칠민화 '수기맹호도' 미국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2023년 전시 · 주요사업 공개


성파 스님 作, 수기맹호도, 2012, 패널에 옻칠, 162x570cm

성파스님 참여 '생의 찬미' 10월 미국전
자수의 역사 살펴보는 '한국 근대 자수'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피카소 도예' 등

적극적 해외교류로 한국미술 담론 확장
다양한 교류로 미술한류 전파 속도 낸다

한국 대표작가 개인전·소외장르 연구
한국 현대 미술사의 지평 확장에 박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이 1월 10일 언론 공개회를 열고 2023년 전시 계획과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백남준의 다다익선 복원 3개년 프로젝트 완료 등 지난해 성과를 이어 해외 유수 기관과의 공동주최순회협력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미술한류 전파의 속도를 높이고 장욱진 · 김구림 등 한국 미술 대표작가의 개인전과 소장품 · 소외 장르 연구로 한국 현대미술사 지평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관 개관 10년 · 청주관 개관 5년을 맞이하여 가상현실, 디지털 혁신 등 동시대 사회 흐름과 연계한 주제기획전도 선보일 계획이며 중견 · 신진작가 조명 프로젝트, 융복합 다학제, 장소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미술의 창조성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해외 기관과의 공동주최, 순회, 협력 등 적극적인 교류로 한국미술 담론을 확장한다. 미국 구겐하임미술관과 공동기획하고 서울에 이어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로스엔젤레스 해머미술관을 순회하는 '한국 실험미술 1960-1970'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축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빅토리아국립미술관(호주), 피바디에섹스미술관(미국), 토노페스티벌(멕시코) 등과 교류 · 확장하여 선보이는 '서스펜스의 도시, 워치 앤 칠 3.0' △1960~197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적 비전을 공유한 김순기와 페터 바이벨 두 작가의 상호 교환 전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 센터(ZKM)의 예술감독이자 이론가 '페터 바이벨: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의 해외 소개도 잇따른다. △미국 샌디에이고미술관, LA한국문화원, 해외문화홍보원과 공동기획하는 '생의 찬미' △중국 유일의 국가미술관인 중국미술관(NAMoC)에서 한국의 전통미술과 근현대작품이 어우러진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을 개최한다.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생의 찬미' 展은 지난 2022년 9월 과천관에서 열렸던 전시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옻칠화 '수기맹호도'로 참여한 바 있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전통 채색화의 가치와 근대 이전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던 전시에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해외문화홍보원, LA한국문화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생의 찬미' 미국 전시는 삶의 영역에 남았던 한국 전통 채색화의 역할을 조명하고, 동시대 한국미술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로, 성파 대종사의 '수기맹호도'를 비롯해 민화와 궁중장식화에 속하는 길상화, 벽사, 기원 감계, 감상 등의 전통적 주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전통 채색화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중국미술관과 교류전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은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열리고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20세기 중국미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2023년 중국미술관에서 열릴 한국 미술전에는 한국미의 특징이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통미술과 근현대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전통을 마주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태도와 방식들을 맥락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공통분모 아래 서로 공감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근현대를 거치며 한국 미술만의 개성과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적해간다.


한국 근대 자수, 박을복 作, 표정 1964, 천에 자수 92x110cm, 박을복자수박물관 소장

2021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렸던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은 한국의 문화재와 한국 근현대미술의 유기적 관계 고찰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한 전시로, 백남준의 '반야심경', '경주 남산 약수곡 석불좌상 불두' 등이 전시된 바 있다.

둘째, 한국 미술 대표작가 개인전 및 소장품 · 소외장르 연구로 한국 현대미술사의 지평을 더욱 확장한다.

△나무, 집, 해와 달, 까치 등 한국적인 정서를 구현한 대표적인 작가 장욱진과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는 김구림 개인전, △동산 박주환 컬렉션 209점 중 대표작을 공개하는 기증작품특별전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 △1920~1930년대 문학과 디자인, 1950년대 반추상에서부터 동시대 젊은 작가들까지 한국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역사와 동시대성을 살펴보는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2019~2022년 새롭게 수집된 소장품 중 서울관의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소장품특별전 2023: 혼돈과 새로움' △그간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수의 역사를 살펴보는 '한국 근대 자수' △이건희컬렉션을 통해 대거 기증된 피카소 도예작품 112점을 모두 공개하고 도예가로서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피카소 도예' (청주 순회전)를 개최한다.

셋째, 서울관 개관 10년, 청주관 개관 5년을 맞이하여 시의성있는 주제기획전을 선보인다.

△기술발전과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가상현실 붐을 주제로 게임적 리얼리즘과 공동체의 사회적 경험에 주목한 '게임사회' △'칠아웃'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대두 등 우리 삶의 방식과 관계 맺기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다룬 'MMCA 다원예술 2023: 전자적 명상에서 일상적 칠아웃'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난 기획전 중 '기념' 관련 전시를 재조명하여 목적 · 기능 · 역할 등 미술관 전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확장을 모색하는 '전시의 전시'를 추진한다.

넷째, 중견 · 신진작가 조명 프로젝트, 융복합 다학제, 장소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한국 미술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심화한다. △국제미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의 대규모 신작 프로젝트로 올해 10회를 맞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지난 10년의 올해의 작가상 수상제도를 개선하여 첫 시작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3'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신인작가 조명 프로젝트 '젊은 모색 2023'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 도전적 창작활동을 공모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3' △청주관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 신 · 중진 작가의 다양한 실험과 신작을 지원하는 'MMCA 청주프로젝트 2023'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특별프로그램 상영, 감독 토크, 연계 강연이 어우러진 'MMCA 필름앤비디오 2023' 도 마련된다.

이 밖에 중점 사업으로는 △'이건희 컬렉션' 목록집 제작 및 대국민 공개 △백남준 '다다익선' 보존 · 복원 발간 △미술한류 해외 공공프로그램 △서울관 10년 축제 △디지털미술관 계획(2023~2025) 수립 △장애인 문화접근성 향상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 교육 등이 있다.

고성 건봉사지, '사적'으로 지정된다


고성 건봉사지(촬영년도 2016년)

문화재청 지정예고 공고해
사명대사 승병 모집처 유명

조선시대 왕실 원당이자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했던 고성 건봉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강원도 고성 건봉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성 건봉사지는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신라 법흥왕 7년(520) 때 아도화상이 지은 절이다. 처음에는 '원각사'라고 불렀으나, 이 절의 서쪽에 새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어 건(乾)과 봉(鳳)을 합쳐 '건봉사'로 바뀌게 되었다. 경덕왕 17년(758)에 발징화상이 고쳐 지었고, 고려 공민왕 7년(1358)에 나옹화상이 다시 고쳤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당시 전소돼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고성 건봉사지는 만일염불의 발상지 및 중심도량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원당으로 기능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며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성과, 사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 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고성 건봉사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8~1/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2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3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4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9	무비스님신금강경강의(어플경전강의01)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5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10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책세상

살아있는 군법사 대부의 '군포교' 회고록



군법사의 길
김덕수 지음
동쪽나라 펴냄
1만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재 충남 논산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주석하며 수행 중인 저자는 군 불교 포교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처음 28사단에 전입해 각 처부를 돌며 인사할 때는 해당 부처의 참모가 기독교 신자일 경우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곤 했다. 어떤 야비하고 못된 참모는 바로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참 드러워서. 말세는 말세구나. 빌어 처먹을 중놈의 새끼가 장교 계급장을 달고 군종참모로 오는 세상이라니……."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욕을 했다. 내가 떠난 뒤에 그런 말을 했다면 몰라도 바로 앞에서 들으라는 듯 그렇게 투덜대니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군종병과 사상 처음으로 진급대상자 중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군종병과에서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김덕수 법사(재원스님)이다. 최근 김 법사가 그동안 군포교에 몸담으며 겪었던 애환과 보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펴냈다. 이 회고록은 한국의 군종장교 그 중에서도 군법사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포교현장서 겪었던 눈물겨운 도전의 생생한 역사를 그리고 있다. 저자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에도 재원 스님으로 탈바꿈해 불교의 생활화와 일상 속 불교화를 꾸준히 주도해왔다. 한국 불교계 최초로 육군 군종감을 역임한 저자는 14세에 출가해 당대 최고의 학승들로부터 경전을 공부한 승려였다. 저자는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육군 군법사 2기로 임관해 군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저자가 군법사가 되어 6군단에 배치되었던 1968년 무렵, 육해공군 부대에는 이미 500명의 군목과 군신부가 군종장교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군법사는 1기 5명, 2기 7명이 전부였다. 이처럼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인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 해방 이후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군목, 군신부를 각급 부대에 적극적으로 배치한 데 비해 불교의 군법사는 아예 군종장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야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종장교에 군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타종교인 및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러다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무렵 베트남 당국자들이 한국의 군법사를 베트남으로 파견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한 게 군법사를 배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20명 이내에서 군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그 자격 조건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덕법계 이상의 승려'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런 자격을 갖춘 군법사 1기생 5명에 이어 2기생 7명이 발탁되어 일선 부대로 파견될 수 있었다. 저자가 처음 육군 중위로 임관되어 6군단 사령부에 배치되었을 때는 아예 '군법사'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연히 군법사가 일할 사무실조차 없었다. 그래서 6군단 영내에 있던 교회로 출퇴근하며 기독교인 장병들의 예배활동을 집계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했던 게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런 열악하고 불교에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도 저자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군부대 최초로 법당을 창건하였다. 대부분의 군법사들이 열악하며 불교에 편파적이었던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의무연한만 채우고 전역한 것과는 달리 저자는 묵묵히 군포교의 최일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군법사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하여 군종감의 지위에 올랐으며 그런 노력 덕분에 그토록 열악했던 군포교도 어느 정도 타종교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을 통해 "나는 부처님 도량인 사찰에서 수행하며 대학을 졸업했고, 초창기 군법사로 종군하여 25년간 전후방에 발령받은 각 부대마다 군법당을 창건해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했다"며 "내가 동진출가 후 경험했던 산사의 승가 생활도, 군법사의 전법생활도, 전역 후의 생활불교운동도 모두 큰 보람이요 즐거움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저자는 "나의 인생은 오롯이 부처님을 향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내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졌다. 부처님은 기도하고 발원하면 다 이루어 주셨다. 일체의 장애와 시련,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소망하고 뜻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뤄졌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여의주가 빛나며 내안에도 여의주가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덧붙였다.

군포교서 겪은 눈물겨운 도전과 역사
한국 불교계서 최초로 군종감 역임해
전역후엔 불교의 생활화 운동 전개해

이 책은 저자가 80여 년간의 수행 이야기들중 주로 군법사로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다. 일생의 반 이상을 군승법사가 되어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생애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출가절벽의 시대 군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점점 어려운 군승 수급의 시기로 치닫고 있는 이때, 이 책은 현재 군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현역 군법사들은 물론 군법사를 꿈꾸는 예비 군승들에게도 희망의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김덕수 법사는?

1945년 강원도 강릉서 태어나 14세 때 강릉 법왕사에 청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 뒤 운허 · 탄허 · 용성 스님 등 당대 고승들로부터 경전을 익혔으며, 1968년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조계사서 수행하던 중 1969년 제2기 군승법사로서 중위로 임관해 6군단 사령부, 월남 십자성 부대, 부산 군수사령부, 김해 공병학교, 계룡대 등 여러 부대의 군법사로 임무를 다하며 군불교 포교에 매진했다. 또한 새로 전입한 부대마다 불이사(不二寺) 불광사(佛光寺) 금련사(金蓮寺) 등 사찰을 창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국에 360여 개에 이르는 군법당을 창건하는 데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해 관할 부대와 지역의 불교 포교의 근본도량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1985년에는 불교계 최초로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여 군사령부 군종참모, 육군 차감, 국방부 군종실장, 군종감을 역임했다. 1993년 4월, 명예 전역 후에는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60여 분원 사찰과 200여 제자를 양성해 전국적으로 불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육군 법요집〉 〈국군 법요집〉 〈군인정신의 샘〉 〈자아발견〉 〈호국승병〉 등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현재 충남 논산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주석하며 수행 중인 저자는 군 불교 포교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 사령부에 군법사님이 새로 왔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쓰지 않는 미군 부대 퀀셋(quonset) 막사라도 뜯어다가 김 법사님이 원하는 법당을 지어주게." 공병대장은 곧바로 지시를 수행했다. 그 결과 며칠이 안 되어 군부대 최초의 퀀셋 법당이 창건되었다.

군법사로서 아쉬웠던 점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 타종교와 비교해 가장 절실한 게 문서포교가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을 분기별로 전 장병에게 보급하는데 그 대상엔 구분이 없다. 기독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를 믿든 무종교이든 무조건 성경을 나눠주는 식이다.

군목들은 천주교, 불교와 출자금을 똑같이 냈음에도 어떻게든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여 그런 마찰이 생겼다. 하지만 그 시절엔 군목들이 많았고 그들이 군종차감, 군종감 등 고위직에 있었으니 육군대위였던 나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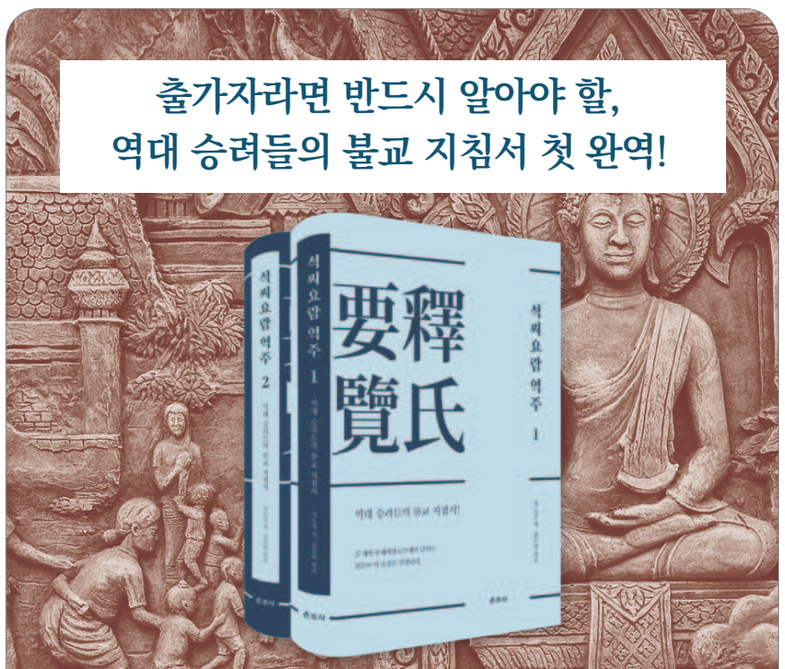
대한민국 군종병과 사상 처음으로 내가 진급대상자 중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군종병과에서 1차년도에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선후배들에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말한다. 인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은 호흡지간에 달려 있다. 숨이 멈추면 인생도 끝난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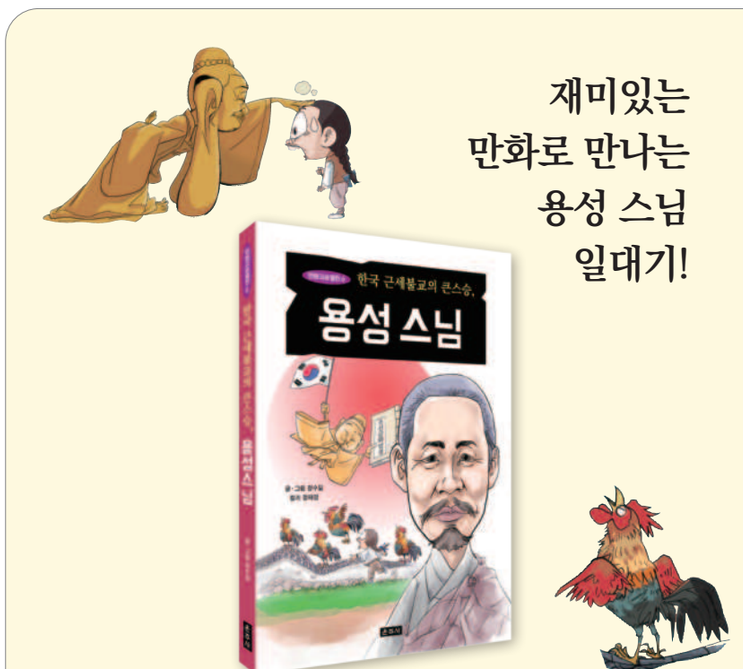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정원은 자연의 법문을 전하는 또다른 ‘사찰’”



수행자와 정원
현진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대표 ‘문사(文士)’ 현진 스님〈오른쪽 사진〉의 〈수행자와 정원〉은 그가 십 년간 산사의 정원을 가꾸며 수행한 사계절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정원에는 꽃과 바람을 비롯해 자연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는 때때로 피고 지는 꽃의 순환을 보며 꽃의 때가 다 다르듯 인간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 말라고 위로한다. 또 시원한 여름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집착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것을 우리 삶의 지혜로 삼자고 응원한다. 이렇듯 수행자에게 정원은 삶을 위로해 주는 벗이자,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다.

현진 스님의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자연이 전하는 단순한 삶의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전한다. 그가 느낀 정원 생활의 고요와 기쁨은 독자들에게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준다. 현대인의 삶은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찬찬히 둘러보면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지고, 구름이 머물다 지나가듯 하루하루 다른 사건과 사연이 전개되는, 새로운 날들이다. 잠시 멈추고, 찬찬히 둘러보라. 순간순간 나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것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수행자와 정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연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 담긴 책이다.

현진 스님이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꿔온 지도 어느새 십 년 세월이 되었다. 정원 가꾸는 재미로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일해 왔다고 고백한다. 그가 정원 생활을 예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출가자로서 수행과 전법에 더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일상 대부분 흙을 만지며 지냈다. 이렇게 정원 일에 전념한 것은 내 나름의 소신 때문이다. 꽃과 나무들이 전해 주는 법문을 들으며 위로받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 말한다. “나도 남은 인생 꽃처럼 웃다가 친절을 베풀며 아름답게 지고 싶다.”는 것이 꽃을 가꾸는 수행자로서 가지는 그의 소망이다. 친절보다 높은 사원은 없고, 친절보다 귀한 경전은 없다. 그러니까 그의 정원은 자연의 법문을 전하는 또다른 ‘절’인 셈이다.

자연을 닮은 수행자의 솔직 담백한 산문집

불교계 대표 문사로 통하는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평이한 문장으로 남녀노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명문’이라는 그의 소신에 따라, 쉽고 간결하며 담백한 문장으로 감상과 깨달음을 전해 왔다. 현진 스님은 수행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계절을 만끽하는 순간순간의 감동과 아름다움 또한 담백하지만



산승이 전하는 정원생활의 고요와 기쁨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진리명료
정원 생활, 교만심 없애는 일종의 수행

다정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명랑하게, 자연처럼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점도 그의 글의 큰 매력이다. 봄 햇살이 이토록 눈부신데 벚꽃이 속절없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는 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다. 나무 아래는 이미 꽃눈으로 뒤덮여 가지에 매달린 꽃보다 더 찬란하다. 차마 밟고 지나기 미안하여 곁으로만 맴돌며 감상했다. 간간이 꽃잎을 날리는 봄바람이 야속한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 내려앉아 꽃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그야말로 봄날의 파적이다. 눈 내린 아침에는 방 안에서 차 마시며 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 최고의 호사다. 화로에 찻물이 끓어 모락모락 김이 오를 때 음악 선율이 잔잔히 받쳐 주면 그야말로 산중락이 따로 없다. 홀로 즐기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수행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고 밋밋했을 것이다. 설경과 마주하는 이 감성을 어찌 전할 수 있으며 이 기쁨을 그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산사의 설경은 그 어느 곳보다 가히 아름답다 할 것이다. 그의 이런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자연이 전하는 단순한 삶의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전한다. 〈수행자와 정원〉서 자연이 들려주는 법문에 귀 기울이며 고요한 행복을 누려 보자.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진리

현진 스님은 정원 생활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기 위한 일종의 수양과 같다고 말한다. 그가 들려주는 정원 생활의 고요와 기쁨의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 생에 다가온 봄날을 외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돋아나는 생명을 통해 삶의 율동과 순리를 배울 수 있어야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다.

그의 정원에는 꽃과 바람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는 때때로 피고 지는 꽃의 순환을 보며 꽃도 피는 때가 다 다르듯 인간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 말라 위로한다. 또 시원한 여름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집착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니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삶의 지혜 삼자고 응원한다. 이렇듯 수행자에게 정원은 삶을 위로해 주는 벗이자,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다.

‘나는 왜 꽃이 피지 않지? 라고 할 필요 없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모두 다르다.’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건 바람처럼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 바람과 같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인생길도 경쾌해질 수 있다. 바람이 가벼운 이유는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바람의 법문은 감정의 정거장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흘려 보내라. 오래 간직하면 종일 기분이 무거워진다. 어차피 떠날 감정인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자신만 손해다. 오늘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면 내 앞을 지나가는 버스라 생각하고 손 흔들어 배웅하라.

늘 바쁘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라지만, 늘 같은 날이 아니라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정원에 같은 날이란 없다. 때에 따라 꽃이 피고, 구름이 머물다 가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도 찬찬히 둘러보면 제각기 다른 사건과 사연이 전개되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다. 순간순간 나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것들 또한 우리가 미처 눈길을 주지 못한 곳에 존재한다. 봄꽃에게서 응원을, 여름 바람에게서 삶의 지혜를, 감나무에게서 위로를, 겨울나무에게서 무욕을 전해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한 〈수행자와 정원〉을 읽어 가며 독자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위로하는 거룩한 법문이 반드시 법당에서만 이루어질까. 꽃과 나무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자연에게 배우며 속진에 물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설교보다 참되다.

출가자의 규범서…27개 주제와 679개 항목으로 정리



석씨요람역주1,2
석도성 지음
김순미 역주
운주사 펴냄
각권 2만7천원

이 책은 송나라 이후 동아시아 불교를 관통하는 불교 규범서이자 출가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불교 교과서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27개의 큰 주제와 679개의 항목으로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이다.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완역본이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가 이 책이 가진 본래의 의미, 즉 불교 입문서, 개론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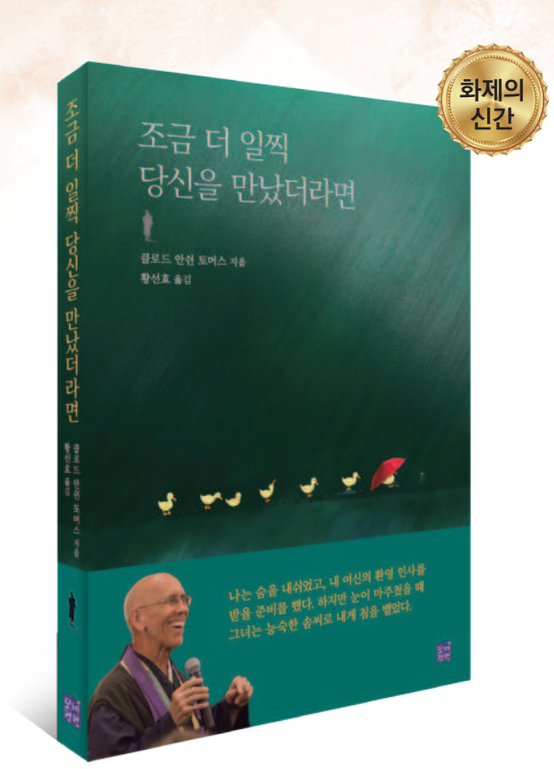
〈석씨요람〉은 1020년 석도성 선사가 찬집한 이래로 불가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 책은 〈번역명의집〉 〈현수제승법수〉와 함께 불학삼서로 불리며 오랫동안 중간을 거듭해 왔으며, 여러 종류의 판본이 존재한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선종사찰서 근세까지도 간행된 것이 확인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승려들을 통해 언급이 될 뿐, 그 존재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불교 용어와 의미, 어원, 예절, 도구, 풍습, 의복, 사상, 규범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이 책은 석도성 선사가 유불서를 가리지 않고 303종이나 되는 책을 탐독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모은 것이다. 책이 찬집되고 천 년이 지났지만, 이 책이 출가자 및 불교 신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출가자의 생활이 큰 변화 없이 이 규범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불가의 명물 전장 칭위 계율 생활의 세세한 예절과 제도 및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왕수가 쓴 후서에 따르면 말 그대로 ‘출가자의 규범서’이다. 초판은 11세기 초에 간행되었는데, 저자 석도성은 ‘처음 법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본말을 몰라 조롱을 받을까 염려되어 찬술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사찰에서는 부록으로 종남산의 도선이 정리한 465조의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를 첨부해 여러 차례 중간하였다. 이렇게 유통되는 동안 〈석씨요람〉은 ‘불학삼서’의 하나로 불리며,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다. 조선에서 간행된 〈불교의식집〉 서문에 ‘불문의 상의집을 만들 때 참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활용되었던 것은 확실하나, 우리나라 판본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불교용어를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는 장점과 〈화엄경〉의 ‘보살십종지’에 의거해 불문의 요점을 잘 간추린 책이라는 강점, 불가의 상례와 유가의 상례가 어떻게 습합되어 시속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와 학계에서는 학술적인 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찬술자인 석도성은 독서량과 범위가 대단히 깊고 넓다.

이 책에서 다루는 679가지의 용어 설명은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풍속연구와 문헌연구, 언어연구, 기물연구 등에도 귀중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지금은 선방서 사용하지 않는 기물들이 설명되고 있고, 중국 북방과 남방의 서로 다른 불교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서로 달리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



▶한줄요약
석존이 남긴 성물(아디카야의 검)에 대해 알게 된 신문사 국장과 기자는 반신반의하며 논쟁 끝에 인도 현지로 가보기로 한다.

석존이 남겼다는 '검'은 과연 존재할까

어느 날 문득 3

공부 많이 했네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목으로 도로 넘어갔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숨겨진 비장문헌을 찾아내는 이들이 어디 한 둘입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말했다.

국장이 그렇겠지 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을 이었다.

-암튼 인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석존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석존으로부터 물려받은 검을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갈 때가 있을 것이라며 숨겼다는 것이야. 그리고 아난존자는 갠지스강으로 나가 스스로 몸에 불을 댕겨 자화장을 했다고 해.

-그럼 그 기록물은 지금 인도 정부에 있겠군요?

-당연히 그랬을 거로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나 봐.

-않다니요?

처음에 왈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겠지. 그러다 사라졌던 모양이야. 그것을 테르텐들이 찾아내 지금의 그곳에다 안장했다고 하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켜주었고…

-그럴 수가!

-테르텐들이 찾아낸 물건은 나라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 봐. 거 왜 있잖은가. 사자의 서라던가? 그것을 찾아낸 것도 개인인데 나라의 것으로 귀속시키지 못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심리학자 칼융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모양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훈민정음 해례본 말이야. 그걸 개인 소장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니 그 검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찾아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다 군인들에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 예하께서 날 보자고 했던 것이야. 사실 꿈도 이상하고… 그러고 보면 종정 예하의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야.

-그럼 개인 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물이니까 뭐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성물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사진이야 물론 있을 테지.

-그런데요?

물론이라는 말이 걸려 내가 물었다.

-나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없어. 인도 정부에서 자료 사진은 공개치 않는다는 것이야. 그들도 성물에 근접하지 못해 적외선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찍어낸 것 같은데… 왜 쉽게 말해 병원에 가면 인체 속을 찍어내는 MRI 같은…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아직도 쉬쉬하고만 있다?

-맞아.

-세계가 놀랄 성물을 놓고 이걸 어떡해야 되나 끙끙 앓고만 있었다? 거 말 되네요. 하하하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미칠 것이 없어 그런 낭설에…

국장이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시선을 들었다.

-그렇긴 한데 종정 예하 말이야. 오도한 이후에 한 예언들이 거의 틀린 것이 없고 보면 말이야. 이번에도 어떤 확신이 드는 모양이야.

-확신? 무슨 확신요? 갖다 붙일 걸 갔다 붙여야지. 그게 성물이 진짜라고 해봐요. 세상이 가만 놔뒀겠어요. 난리가 났지. 낭설이고 가짜인 줄 아니까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조심해.

-기자질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어쩌겠느냐는 듯이 국장이 난감한 어조로 중얼거리며 빈 찻잔에다 차를 따랐다.

-사진도 없는 성물? 하하하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겠네요.

그랬다. 석존이 칼을 남기셨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그런 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처음이다. 검을 우리말로 하면 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셨다는 검인지 칼인지 검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칼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칼이 정말 인도에 있었다면 왜 몰랐는지 그것도 이상했다.

내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데도 국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 뭐가요?

-사실 인도 정부에서 누군가 가져갔다고 헛소리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다 거든.

-그런데요?

-인도 뉴델리안 신문에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멍하니 국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니 어떡하겠어.

-뭘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종정 예하에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물이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글쎄…?

-하긴 그게 더 일리가 있네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다시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내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물을 탐낸 인간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보라?



내가 바로 찔러 들어가자 국장이 맞서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맞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성물이 정말 동굴 석관 속에 있다면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군. 칼이 쇠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칼을 지키기 위해 왈리가 그 당시 썼다는 재료의 비밀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풍설 또한 있다고 하니까.

-하하 참 내. 그러니까 낭설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두 번 당해봤어요. 아니 이집트 미라의 비밀도 풀어내는 판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듯한 내 어투에 국장이 또 고개를 갸웃했다.

-인도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물이 든 석관 뚜껑도 열지 못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속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손이 탈까 쉬쉬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성물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서야 석관을 그대로 두고 어딘가로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장이 정말 혼란스럽다는 얼굴로 동의를 구하듯 내게 물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면서요?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훔쳐 갑니까? 군인들의 눈을 피해 그걸 누가 훔쳐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진짜 석존이 남긴 성물이라면 지금이 어떤 시댄데 동굴 속에 방치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좋아요. 성물이 그렇게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 성물은 지금 거기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낭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지?

국장이 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재밌네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지만 고루하고 융통성도 없는 고집스런 종정의 모습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종(宗)이다. 추구하는 것에 따라 종파가 생겨났다는 말이다. 화엄경을 중요시하는 화엄종, 법화경을 중요시하는 천태종, 명상 수행에 중점을 두는 선종, 깨끗한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정토종…

진리는 한바다인데 왜 대부분 늙어가면서 지도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하면 죽어라고 옳다고만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비구 못지않게 혁신적인 비전의 소유자도 있다. 하지만 종정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수행했으면서도 고루함에 갇혀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루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환경 탓이겠지만 수행이 깊을수록 고집쟁이들이 많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말들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간밤에 자신의 스승을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 준비하라 내일 데리러 오겠다 하고 가더라 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 날 스승이 명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성물을 찾아서 1

말도 안 되는 인도출장이 그렇게 결정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낭설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디 한두 번 당해 보았나. 나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헛웃음만 나왔다. 스리나가르로 가서 성물을 확인하라고? 분명히 낭설일 터인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지 기가 막혔다. 믿자고 해도 그렇고, 믿지 않으려 해도 그렇고. 정말 석존이 남긴 성물이 스리나가르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심만 할 것도 아니었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두 번 속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나더러 또 믿고 가라? 언젠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이상하긴 이상했다. 한 가닥 검은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곱슬머리였다.

분명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다. 얼굴이 검고 코가 높은 사람들이 보였다. 뒤이어 절이 보였고 그 절의 주지라고 하는 스님이 석존의 성물이 담긴 함을 내놓았다. 자신들이 모시는 석존의 머리카락 생사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해져 내려온 역사를 들먹이는데 절로 탄성이 나왔다. 석존 열반 후 그의 전신이 사리가 되었고 그것이 각 나라로 배분되면서 그때 남겨진 것이 머리카락 생사리라고 했다. 살아 있는 석존의 머리카락? 세상에 그런 성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석존이 세상에 남긴 생신사리라는 것이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칼이라고 한다. 안 믿자니 어쩐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믿자니 석연찮고…

불교는 과학이다. 현대과학의 방법론과 철저히 닮아 있다는 것은 불교사상 자체가 증명한다. 누구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5온, 12처, 18계, 22근, 4제, 12연기, 37보리분법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체계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이다. 혹자는 말한다. 그럼 불교의 사상체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는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과학적 방법으로 그 세계를 설명해 내는 방법론이 있다. 실증적 방법론이 그것이다.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❷ 정초 불공



▶한줄요약
정초 독불공 하던 시기, 잔반 보관 위해 다양한 방법이 생겼다. 가장 창조적인 보관법은 솔잎 찧은 물에 담가 보관하는 방식이다. 정초 독불공 풍습 속에서 스님들의 놀라운 지혜식이 꽃핀 것이다.

정초 독불공 속서 피어난 지혜식, 송죽〈松粥〉



정초 불공 올리는 모습 (마곡사)

쌀 귀히 여기는 승가서
잔반 보관 방법 생겨나
정초 독불공 풍습 속에
스님들 지혜식도 꽃 펴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 (통도사)

출가자와 재가자의 조화로움

조선 후기의 풍속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스님들의 정초 탁발 모습이 담겨 있다. 법고를 치며 거리로 나가 모연문을 펴놓고 염불하거나, 집집이 다니며 시주를 권선(勸善)한 기록이다. 섣달그믐에도 자정이 지나면 스님들이 민가를 돌며 큰소리로 염불과 함께 재 올릴 쌀을 청했다. 섣달그믐 밤 자지 않고 불을 밝힌 채 밤새워 수세(守歲)하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새해가 되었음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울산 석남사에서도 동지 무렵, 학인 스님들이 삼북마을에 내려가 탁발하는 풍습이 있었다. 반야심경이나 화엄경 약찬게를 외며 상가와 민가를 돌았는데, 주민들은 이를 지신밟기처럼 여겼다. 수행자들이 집집이 와서 경전을 읊으니, 마치 정초에 풍물패가 지신(地神)을 밟아주어 삿됨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듯 흥겨워했다는 것이다. 시주물은 어려운 이웃에 보시했으니, 모두 재가자의 복을 쌓아주는 출가자의 정초 탁발이었다.

예전에는 정초 무렵이면 사찰에서도 지금보다 명절 분위기가 흠뻑 났다. 형편이 어려워도 정초에는 떡과 강정을 만들며 후원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설음식으로 불공과 차례를 올리고 어른들께 세배 오는 손님맞이도 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새해를 복되게 맞고자 한 것이다. 먹을 게 귀했던 시절, 질박한 삶일수록 명절을 명절답게 쇠고자 했던 분위기 또한 지금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신심 깊은 신도들은 명절 전에 일찌감치 절을 찾았다. 식량이 부족한 절 사정을 파악해 정초 불공의 시주를 넉넉히 하기 위함이다. '건대 곡식'이라 하여 명절 전에 집집이 곡식을 거두어 시주하는 마을도 있었다. 그렇게 절 살림을 도와 조촐하게나마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었던 셈이다.

큰절의 정초 맞이는 명절음식 · 제사음식 준비로 민간의 큰집 못지않게 바빴다. 특히 큰절과 산내 암자의 관계는 명절에 더욱 돈독해졌다. 명절을 앞두고 암자의 스님들이 큰 절에서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모두 큰절로 내려와 서로 세배하며 정초 인사를 나누었다. 떡국과 명절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나면, 큰절과 암자의 노스님들이 대방에 둘러앉아 흥겨운 윷놀이가 펼쳐지는 것도 명절에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절에서도 마을에서도 명절에 소외된 이가 없는지 챙기는 일에 빠뜨림이 없었다. 정초 음식을 장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작은 비구 스님 암자에는, 근처 사찰은 물론 신도들이 떡을 만들어 와서 불공을 드리고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곤 했다. 명절 음식은 가능하면 넉넉히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 승속의 구분 없이 이어진 우리의 풍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사찰과 마을의 관계가 돈독한 곳에서는, 섣달에 주지 스님이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럴 때면 집집이 사정에 따라 이런저런 불공을 올려주기를 부탁했고, 농사지은 쌀이나 수확물을 불전으로 내어 사찰로 옮겨드렸다. 형편이 어려운 집은 파악해두었다가, 설 전에 절에서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이처럼 명절에는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깊었다. 재가자와 출가자 간에 오가는 재보시(財布施) · 법보시(法布施) 또한 고정된 방향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물 흐르듯 가는 것이었다.

공양미와 독불공

1970년대까지 불공과 시주의 대부분은 화폐가 아닌 쌀이었고, 때로 수확한 작물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불자들이 사찰에 올 때면 쌀 한두 되나 많게는 한 말을 짊어지고 왔는데, 당시에는 칠팔십 노인들도 쌀을 이고 다니는 것이 예사였다. 모든 시주가 화폐로 옮아간 오늘날에도 불단을 비롯한 각단마다 쌀 공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쌀은 '공양미(供養米)'라 불리며 불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화폐 개념으로서 쌀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양미는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摩旨)를 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도들은 가장 좋은 상품(上品)의 쌀을 깨끗한 자루에 담아 사찰을 찾았고, 부처님 공양물은 땅에 놓는 법이 아니라 하여 내려놓지 않은 채 이고 지며 가져왔다.

보문동 미타사 스님이 "예전에는 멀리 종로에서 할머니들이 쌀을 이고 이곳 탑골승방까지 왔다"고 했듯이, 머리에 쌀을 인 채 두 시간을 족히 걸어 부처님께 쌀을 올리는 정성을 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찰의 신도들도 직접 쌀을 이고 불공을 드리러 사찰을 찾았다. 신도들은 자신이 이고 온 쌀을 부처님께 바치고, 불단에 밥을 지어 올리는 것을 최고의 정성으로 여기며 흡족해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집은 보리쌀도 함께 가져와서, 쌀은 부처님께 올리고 보리쌀은 신중단에 올렸다.

이렇게 신도들이 지고 간 쌀은 실제 불전에 마지 공양으로 올려졌다. 합동 불공 개념이 없었던 당시에는, 집집이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며 스님과 함께 독불공(獨佛供)을 드린 것이다. 독불공은 정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사찰마다 이른 새벽부터 쌀자루를 인 신도들이 줄을 이었다.

한 집에서 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마지와 불공을 올린 뒤 신중단으로 옮기면, 다른 스님이 다음 집 신도와 함께 불단 앞으로 갔다. 그렇게 각자 가져온 공양미로 밥을 지어 불단부터 신중단과 산신각 · 칠성각 · 독성각 등에 차례로 마지를 올리고 기도한 것이다. 불공을 마친 신도는 가족 단위로 자신의 마지 밥을 내려 공양하면서, 정초 독불공은 대개 보름까지 계속되었다.

스님들은 잠시의 쉴 틈 없이 염불을 이어갔고, 후원에서도 가마솥에 불을 때어 종일 밥과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학인 시절에 울산 문수암에 백일기도를 하러 갔던 고산(杲山) 스님은, 정초를 만나 수백 자리의 독불공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정초가 지난 뒤 혓바늘이 돋고 입안이 부르터 공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여러 스님의 노력과 의식의 변화로 마지 대신 생미(生米)를 올리는 독불공이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독불공 또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점차 합동불공으로 바뀌어 갔다. 하루 한 차례 사시마지 외에는, 불단과 각단의 모든 공양물이 백미로 대체된 것이다.

내가 가져온 쌀로 오롯이 마지를 지어 부처님께 올리며 발원하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독불공은 불법에도 맞지 않고 폐해가 깊으니 자연스럽게 바뀐 풍습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합리적이었지만, 하나의 관습이 바뀌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연스러운 수용이 필요하였던 셈이다.

송죽(松粥)의 추억

명절 분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넘어오면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일이 이어졌다. 예전 노스님들 방에는 누런 포대종이가 하나씩 있어, 시루떡이나 백설기를 잘라 그 위에 펼쳐놓고 바짝 말린 다음 오래 두고 먹을 간식으로 삼았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은사 스님이 챙겨주는 간식거리도 말린 떡이었다. 떡 봉지를 걸망에 챙긴 채 씩씩하게 강원을 향했던 학인 스님들에게, 당시의 말린 시루떡은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귀한 떡이었다.

무엇보다 독불공을 하던 시절이니, 정초를 지나고 나면 엄청난 양의 밥이 남았다. 식량 걱정이 덜한 절에서는 조청 · 식혜나 누룽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남은 밥을 주식으로 삼아야 하는 사찰이 더 많았다. 따라서 한 톨의 곡식도 귀하게 다루는 것이 승가의 규범이기에 잔반(殘飯)을 보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겨났다.

"밥을 말리는 게 일이었다. 정월에 밥을 말려 초파일까지 먹고, 초파일에 말리면 칠석까지 먹었다. 산꼭대기 바위마다 밥이 지천이었다." 노스님들의 말씀처럼, 가장 손쉬운 것은 말렸다가 다시 밥을 짓는 방식이었다. 돗자리에 밥을 말려서 딱딱해지면 독에 보관해두고 쌀처럼 밥을 했는데, 쌀로 지은 밥보다 맛이 떨어졌지만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라 먹을 만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 백련사 등에서는, 밥을 할 때 끓이기만 하고 뜸을 들이지 않은 채 마지를 푸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은 밥은 찰기가 거의 없어 쌀알이 낱개로 흩어질 정도였는데, 말려서 보관했다가 다시 밥을 하면 쌀과 다름없는 맛이 났다고 한다. 밥을 짓는 시간도 줄이고 맛도 지킬 수 있었으니, 밥과 생미의 중간 지점에 놓인 절충형이라 하겠다.

가장 창조적인 보관법으로 솔잎 찧은 물에 담가 보관하는 방식이 있다. 커다란 항아리에 밥을 한 켜씩 넣고 솔잎 물을 부어두면, 자연 방부가 되어 오래 지나도 상하거나 붇지 않았다. 솔잎 물과 함께 중간중간 솔가지를 넣어두는 사찰도 있었다. 먹을 때는 밥을 건져서 씻은 다음 주로 죽을 쑤어, 이를 '송죽(松粥)'이라 불렀다. 다시 쪄서 밥으로 먹기도 했는데 그때는 '솔잎 밥'이라 하였다.

1960~1970년대까지 잔반 보관에 솔잎 물을 쓴 사찰은 전국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1920년대의 월간지 〈불교(佛敎)〉에도 "스님은 송죽(松粥) 거리 논을 팔아 남장사에 만일회(萬日會)를 차렸을 때, 나는 그 뒷방에서 논어를 읽었다"는 구절이 있어, 송죽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송죽 거리 논을 팔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나타내는 말로 '송죽 거리'가 쓰였음이 짐작된다.

노스님들은 50여 년 전에 사라진 송죽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파르스름한 색깔로, 특유의 향으로, 그리고 궁핍해도 신심이 끝없었던 시절로 간직된 기억이었다. 특히 솔잎 물이 진해 송진 냄새나 떫은맛이 심하면 강된장과 함께 먹었는데, 진한 맛으로 냄새를 잡아주니 궁합이 맞기 때문이다.

이처럼 솔잎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잔반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초의 독불공 풍습 속에서 스님들의 놀라운 지혜식(智慧食)이 꽃핀 것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❷ 연기와 무상



▶한줄요약
일본 선림사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여래도〉의 옷 문양에는 법신과 보신이 확인된다.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여래 衣서 법신·보신 확인…자체가 '부처님'

'흐르는 나를 보라' 설한 부처님
나로부터 분리돼야 진정한 자유
흐름을 보는 것이 곧 法 보는 것
'緣生' 반복 문양서 부처를 본다



도판① 일본 선림사 소장된 〈아미타여래도〉에서 아미타여래의 옷 문양.



도판② 둥근 원상(법신)에서 장엄한 에너지(보신)이 나오고 있는 장면.

한번 발을 담근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판타레이와 제행무상

"판타레이(Πάντα ῥεῖ)!", "모든 것이 흐르고 있다(All things are flowing)"라는 뜻의 그리스어.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로 번역하면 '만물유전(萬物流轉)'이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B.C.535~B.C.475)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계속 흐를 뿐이다"라는 만물유전의 철학으로 유명하다.

유사한 시기에 생존했던 석가모니 붓다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행"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무상"은 항상 상(常)자와 없을 무(無)자를 써서, '항상인 것은 없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 정확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Law of Change)'라는 의미이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다. 끝없는 동영상의 흐름이지, 스틸 컷(Still cut, 멈춘 한 장짜리 사진)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노릇이겠다.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강물만 아까 그 강물이 아니라) "담갔던 발도 아까 그 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나도 흐른다'이다. 그리고 '흐르는 나를 보라'고 붓다는 말씀하신다. 흐르는 나를 보면, 나라는 고통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흐르는 나를 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끊임없이 흐르는 나'를 봐라!

'내가 안팎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안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무아無我)을 알게 된다. 무상·고·무아는 한 세트로 함께 가는 근본 진리이다. 이를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상은 어째서 고(또는 고통)인가? 우리의 마음(무명, 자각의 빛이 없는 상태)은 항상 (무엇이) 있다고 착각한다. 내가 있다고, 네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세상이 있다고 매양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 하는 일이다. 그래야 무명이 스스로인 무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만물의 속성을 불교에서는 '자성(自性)' 또는 '자재(自在)'라고 한다. 그리고 "무명 업장 벗으라"고 말한다. 참으로 오래고도 질긴 '있다는 착각의 도돌이', 다시 말해 '세세생생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다. 있다는 착각! 우리에게 장착된 인식 체계(6근·6경·6식의 작용)는 이러한 착각을 스스로 즐겨 동반하기에, 이것이 깨지면 고통이 온다.

거칠게 파도치는 '오온(五蘊)'은 자나 깨나 또 살건 죽었건 우리를 흔들고 있다. 무상한 '오온'의 생멸로, 우리는 무상한 '고통'의 연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쉴 수가 없다. 인생이 참으로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오온과 고통이 우리를 24시간 365일, 그것도 세세생생 달달 볶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놓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온이란, 무명이 만들어지는 구조이자 요소이다. '다섯 가지 덩어리'란 뜻으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말하는데,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파악과 표상, 행은 의지 작용, 식은 인식 작용을 말한다. 하나의 무명이 생멸하는 과정, 그 일련의 인과관계를 통찰한 것이 12연기이다. ①무명(無明) → ②행(行) → ③식(識) → ④명색(名色) → ⑤육처(六處) → ⑥촉(觸) ⑦수(受) → ⑧애(愛) → ⑨취(取) → ⑩유(有) →⑪생(生) → ⑫노사(老死)의 과정인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과정'을 펼쳐놓은 것이다.

'나'로부터의 '분리'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자유는 이것으로부터의 '분리' 뿐이다. 오온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초탈할 수 있는 방법은,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통찰지를 키워 그것의 실체를 보는 것뿐이겠다. 무명의 줄기찬 흐름이 불가항력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마음인 각성(覺性)이 있다. 이 각성을 불성(佛性)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흐름(또는 변화)'을 보는 것이 '법(法)'을 보는 것이고, 붓다가 말씀하신 우리의 수행 목표다. 요소들의 이합집산과 그것의 생멸의 흐름을 보아, 현재에서 무상·고·무아를 통찰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니밋따 또는 일경성(합일의식) 등 사마타 수행 중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궁극의 수행 목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업장을 멈출 수는 있으나, 업장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업장이란, 무명의 반응으로 쌓아온 오염된 마음 덩어리이자 오염된 반응 체계이다.

하지만, 사마타는(궁극의 수행 목표는 아니나) 위빠사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그래서 붓다는 사마타〔지(止) 또는 정(定)〕와 위빠사나〔관(觀) 또는 혜(慧)〕를 함께 닦는 방법을 계발하셨다. 이것이 불교의 요체이다. 사마타 수행은 여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관의 대상인 신(神)에 집중하는 것.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핵심은 위빠사나에 있다고 하겠다. 정혜쌍수 또는 지관겸수를 통해 계발된 마음을 '반야(또는 반야지혜)'라고 한다. 이는 자칫 덩어리로, 자칫 있다고 보이는 대상을 꿰뚫어 그것의 실체(무상·고·무아)를 보는 각성의 힘을 말한다.

어떻게 지관문(止觀門)을 수행할 것인가? 지(止)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상을 멈추는 것을 말하니, 사마타(奢摩他)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관(觀)이라는 것은 인연의 생멸 상을 분별함을 말하니, 위빠사나(毘鉢舍那)의 뜻에 따르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지관문 중에서

지관겸수의 수행을 통해, 계발된 반야지혜로 세상을 통찰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일대연기(一大緣起)로 보인다. 변화무쌍한 생멸의 연속적 흐름만 있는데,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법계연기 또는 무진연기라고도 한다. 이 같은 진리의 풍경을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 또는 조형화한 것이 불교미술의 세계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옷 문양(고려시대 〈아미타여래도〉의 부분, 일본 선림사 소장)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도판①)

둥근 문양, 그 자체로 부처님

자색 바탕의 옷 위에 금니선(金泥線)으로 영롱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곡선으로 휘돌아 나가는 줄기 모양의 서기(瑞氣, 신성한 기운 또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멈추어진 정물(靜物)이 아니라, 부단히 생성되고 있는 서기의 향연이다. 서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둥근 원으로 표현된 법신의 바탕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과 저것이 만나 연기(緣起)하여 연생(緣生)하고 있다. 그리고 연멸(緣滅)하는가 했더니 다시 연생(緣生)을 반복한다. 문양은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파도치고 있다. 무상, 변화하는 여정 중의 진리를 그림으로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기의 줄기는 빙빙 돌며 원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는 우주의 꽃과 잎사귀가 피어난다. 세부 문양들은 각기 따로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풍경을 대승경전(〈화엄경〉〈법화경〉〈아미타경〉 등)에서는 다채로운 표현을 빌려 비유적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면, 〈아미타경〉에는 서기의 분파를 보배나무 기둥과 그것의 무수한 가지로 표현된다. 물론 나무의 크기와 가지의 숫자는 수 천 억 유순과 나유타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 단위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잎사귀·꽃송이·열매들의 규모와 형상 역시 불가사의하여,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경전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형용사의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러한 방대한 기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여의주와 빛(광명)'이다.

깨달음의 '본체(體)'는 여의주, 둥근 원상으로 표현된다.(도판②) 원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用)'은 빛으로 표현된다. 본체는 법신이고, 작용은 보신이다. 빛의 작용과 그 표현은 불교미술에서 매우 다채롭게 구현되지만, 패턴이 약 2가지가 있다. 분출하는 형식과 소용돌이치는 형식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형식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옷 문양 단위 하나에서 '법신과 보신'을 볼 수 있다. 이 문양 자체로 '부처님'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1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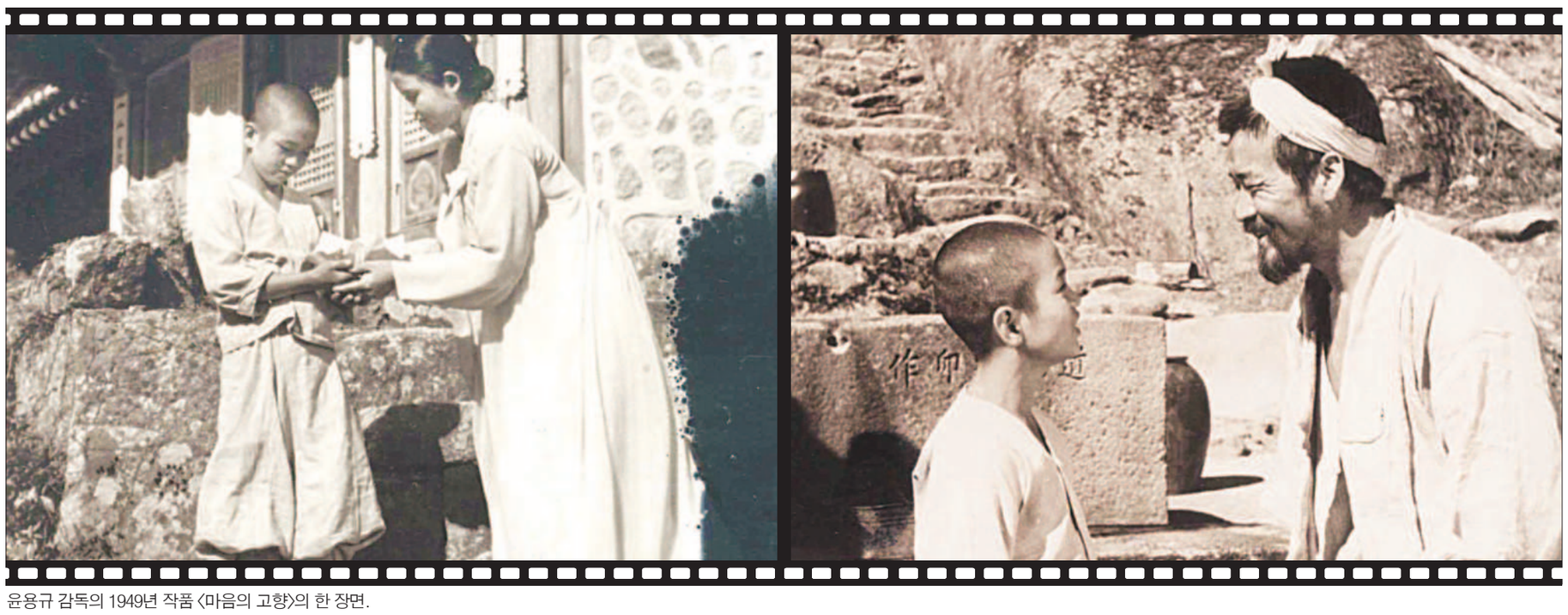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이안의 Media In Buddha ⑧ 영화 〈마음의 고향〉(1949)



▶한줄요약
1949년에 발표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작품으로 한국 최초 불교영화로도 잘 알려졌다. 소재부터 촬영, 불교적 가르침을 담아낸 내용까지 모두가 완벽한 수작이다.

애절한 母情·佛心 그려낸 韓불교영화 효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의 한 장면.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이 벌어지기까지, 1945년부터 1950년이라는 짧은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라도 새로 세워야하고,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전쟁에 동원되면서 텅 비어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화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와 시책을 알리는 뉴스 영화나 일제강점기에는 영화에 드러날 수 없었던 항일운동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나 필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렵사리 만들어졌을 몇 편의 문예영화가 이 시기 영화예술과 영화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 가운데 한국 최초의 불교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다. 1949년에 발표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의 희곡 〈동승(童僧)〉(1939)을 각색한 작품인데, 얼마나 작품성이 빼어났던지 개봉 1년 뒤인 1950년 4월, 프랑스와의 첫 번째 문화교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프란시 날프 영화사의 〈꿈속의 노래〉(1949)와 교환 상영하게 되면서 〈마음의 고향〉은 프랑스로 날아가 상영되었고, 바로 두 달 뒤 덮친 6.25 전란의 포화를 피해 영화가 원본 그대로 남아있게 된 기적과도 같은 영화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산하는 산하대로 전쟁의 포화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에 타서 사라져갔다. 깊은 산에 터 잡고 있던 수많은 산사들조차 전쟁의 참화를 피할 길 없던 이 시기에 〈마음의 고향〉이 프랑스에 남게 된 것은 어떤 가호를 받았기 때문일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없어 창호에 구멍이 뚫리고 처마에 거미줄이 쳐진 산사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마음의 고향〉의 제작 상황은 스크린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일제가 버리고 간 낡은 카메라는 종종 렌즈 초점이 맞지 않고, 전기가 들어올 리 없는 깊은 산중에서 조명을 제대로 밝힐 수 없어 대부분의 빛을 자연광에 의지해야 했고,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망가진 절 건물은 보수도 되어 있지 않아 안쓰럽기조차 하다.

그런데도 76분짜리 흑백 영화에 깃든 영상미, 한 장면 한 장면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공들인 촬영, 촬영된 필름들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으로 이어 가는 편집 기법, 자연과 사찰과 민속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소리들이 빚어내는 사운드의 조화는 오늘날 첨단의 영상장비와 수백억 제작비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품격을 담고 있다.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계기로 해외에서 보존되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영화가 겪은 것은 영화 속 주인공 동자승 도성의 여정이자 염원인 듯도 하다.

절간에 버려진 업둥이 도성은 절에서 지내는 동승이다. 마을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고 놀리고, 주지 스님과 절 생활의 엄격함은 아직 아이인 도성에게는 또래 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이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도성은 새벽마다 스님들의 예불을 준비해야 하고 예불 내내 지키고 있다가 종을 울려야 하고, 물도 길어오고 빗자루로 경내 청소도 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새총으로 새를 잡고 놀 때에도 늘 절집 식구로서 자기 몫을 해내야 한다. 아무리 주지 스님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아쉽고 외로운 상황에서 어린 도성이 어머니를 궁금해 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아리땁고 자애로운 서울 아씨가 절을 찾아와 머물게 되면서 도성이 서울 아씨에게 마음을 붙이게 되는 것은 푸근하면서도 안타깝다. 아들을 잃고 공양을 드리러 절을 찾은 서울 아씨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도성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외딴 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자신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도성을 양자로 삼겠다고 간청하는 서울 아씨에게 모친의 업 때문에 도성은 남보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한다며 쉽게 허락을 내리지 않는 주지 스님의 매몰찬 답은 야속하기만 하다.

어머니가 누군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도성의 처지가 안타까운 나머지 나무꾼 아저씨가 도성에게 염주 안에 부처님 대신 빨간 연꽃이 그려져 있는 염주를 가진 사람이 어머니라고 알려줬을 때, 서울 아씨가 자기 어머니가 되기를 갈망하던 도성은 아씨의 방에 들꽃을 꽂아놓은 다음 염주를 들여다보지만 연꽃 대신 그 옆에 놓인 깃털 부채가 눈에 들어온다. 〈반야심경〉을 외우는 순간에도 경전 위에 아씨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이제 도성에게는 아씨의 수양아들이 되어 서울로 따라가는 것이 어머니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되었다.

함세덕 희곡 '동승'을 각색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
'한국 최초 불교영화'로 유명

서울 아씨와 친어머니 사이서
고민하는 동자승 도성 그려내

하필 그때 도성을 찾아온 친어머니가 주지 스님을 만나 도성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스님도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행실을 문제 삼아 친어머니를 내치는 주지 스님 앞에서 어머니라고 나서지도 못한 친어머니가 도성을 아들 삼겠다는 부유한 서울 아씨를 만나러 방에 찾아갔을 때, 마침 도성도 그 방에 들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은 애처롭고 딱하다.

염주 하나를 쥐어주고 친어머니가 떠난 다음, 마침내 도성과 서울 아씨의 간절함을 받아들인 주지 스님이 속세에 가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과 아침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암송할 것을 다짐받고 서울 아씨에게 도성을 수양아들로 삼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 된 일이기는 하나 바른 일은 아니어서 또한 안타깝다.

그동안 도성이 내내 그리워한 것은 어머니 역할을 할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였고, 낳은 어머니와 앞으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도성은 진짜 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새로 어머니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업을 새로 짓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서울 아씨에게 부채를 만들어 주려고 새를 잡아 깃털을 탐한 것이 주지 스님에게 들키면서, 서울 아씨에게 양자로 가려던 일도 틀어지고, 자신에게 남겨진 염주를 들여다보고서야 그렇게 그리워하던 친어머니가 자신을 보러왔건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울 아씨도 친어머니도 다 떠난 절에 남게 된 도성에게 계율과 불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주지 스님은 반듯하지만 무섭기만 하다.

두 어머니가 모두 떠난 절에 남은 도성에게는 이전처럼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종을 울리고, 마당을 쓸고, 심부름을 하는 수행의 일상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과정과 곡절을 겪은 도성은 이제 예전의 도성이 아니다. 마냥 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찾기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찾으러 모두가 잠든 시각 홀로 깊은 산문을 벗어나 속세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 도성의 모습은 진리란 깨우쳐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찾는 과정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로 출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깨우침이 되는 놀라운 도약을 이뤄낸다.

도성이 떠난 산과 앞으로 갈 길을 멀리까지 비추는 익스트림 롱 샷, 그 가운데 한 점이 되어 걸어가는 도성의 모습은 '마음의 고향'이 무엇인지 오래도록 곱씹어보게 한다.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의 원작인 함세덕의 '동승'은 이후 주경중의 〈동승〉(2003)에 이어 박영철의 〈내 마음의 고향〉(2014)으로 리메이크 됐는데 이 가운데 〈마음의 고향〉이 가장 원작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예술적 완성도와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고전으로 꼽힌다.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나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에서 불교 영화로 잘 알려진 작품들에서 〈마음의 고향〉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은 이 작품이 최초의 불교영화라는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가장 정통적인 불교영화이면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예술성을 성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아씨 역을 맡은 배우 최은희의 아름답고 앳된 신인 시절의 모습,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의 온전한 봉정사 경내를 볼 수 있는 것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영화를 통해 오늘의 관객이 두루 누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다. 또한 다행인 것은 오래도록 흔적을 찾을 수 없던 이 영화가 1993년에 프랑스에서 16mm 필름 프린트를 기증받고, 2005년 일본에서 35mm 원본 네거티브를 발견해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마음의 고향〉을 디지털로 복원해 VOD와 DVD,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영화에 담긴 큰 염원과 놀라운 가호의 힘이 아닐까 한다.

〈영화평론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불 향 : 100.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 선 향 : 8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마음이 몸 안에 있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④ 마음

〈원문〉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모두 몸속에 있으며 여래의 푸른 연꽃 같은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습니다. 저의 부근사진(浮根四塵)은 제 얼굴에 있으니 이처럼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 몸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여래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숲을 보나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존이시여, 강당은 급고독원에 있고 기타숲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네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먼저 여래를 보고 다음에 대중을 보고 밖으로 내다보아야 기타숲과 급고독원을 봅니다."

그때 부처님이 금색의 팔을 펴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고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대불정수능엄왕이란 삼마제가 있다. 만행을 갖추고 있으며, 시방의 여래가 한 문으로 나와서 미묘하게 장엄하는 길이니 잘 들으라. 네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 창문을 통하여 기타숲과 급고독원을 본다 하니 누구든지 강당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여래를 보지 못하고 밖을 보는 이가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여래는 보지 못하면서 기타숲이나 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난아, 너도 그러하니라 너의 신령한 마음이 온갖 것을 아는데 이 아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몸속의 것을 먼저 보아야 할 텐데, 어떤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나중에 밖을 보는 이가 있느냐?"

〈강해〉 불교 수행을 마음 찾는 공부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마음으로써 마음을 닦는다(以心修心)"고 보조국사의 어록에도 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부처님의 물음에 아난이 몸속에 있다고 대답하는 장면이다. 부근사진(浮根四塵)이란 색향미촉(色香味觸)의 사진인데 눈, 코, 혀, 몸의 촉감을 통해 상대하는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눈이 얼굴에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과 아난이 급고독원 강당에서 묻고 답한다. 강당 밖으로 기타숲이 보이고 경내의 풍경이 보인다. 쉽게 말해 방안에서 방밖의 것을 보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렇게 물은 것은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왜 몸속을 보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 밖의 것만 볼 수 없듯이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몸속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아난의 말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해 버리는 내용이다. "마음은 있는 곳이 없다(心無方所)"는 말이 있고 "마음은 없는 곳이 없다(心有一切處)"는 말도 있다. 마음 그 자체는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달리 말해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처소가 없고 시각이 없다. 시공을 초월한 것이므로 있고 없고 유무(有無)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있다고 보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다.

불교의 논리를 세울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관점이 있다. 유(有), 무(無), 비유비무(非有非無)인데 이것을 종(宗)으로 법을 설할 때는 상종(相宗), 공종(空宗), 성종(性宗)이라 한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대불정수능엄왕'이라는 삼마제를 소개한다. 삼마제(三摩提)는 일반적으로 삼매(三昧)라고 하는 것인데 samadhi의 음사어로 삼마지(三摩地)라고도 표기한다.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원각경에서 말하는 삼관(三觀)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삼마제다. 이 삼마제를 대불정수능엄왕이라고 이름한 것은 가장 높고 큰 선정법임을 나타내는 말로 부처님 정수리가 워낙 높아 사천왕까지 올라가서도 보지 못했다는 설화에서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이다. 모든 보살들의 만행이 이 삼마제에 들어 있으며 시방 여래가 이것으로 인해 생사를 뛰어넘어 미묘하게 장엄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간극 적멸상과 밝은성품 기쁨에 집중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④ 자비관

3선정에서는 심중 철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비관을 행한다. 이때에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과 의지를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철벽에 머물러서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이 이때의 자비관이다. 이것이 네 번째 자비관이다.

4선정에 들어가면 본성을 주체로 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제도한다. 무념무심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오로지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이때의 자비관이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로 접해지는 일체의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본성에 집중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자비관이다.

여기까지가 '정해탈'의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신작증구족주'의 과정으로 해탈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면 신념처관과 수념처관을 병행하면서 안 몸과 바깥 몸의 업식을 제도해야 한다. 공무변처정에 들어가면 본성을 통해서 감정을 제도한다. 투쟁심과 경쟁심을 제도하고 욕정과 격정을 제도한다. 본성으로 비추고 밝은성품을 운용해서 감정의 추업과 세업을 제도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자비관이다.

식무변처정에 들어가면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의 세업을 제도한다. '피질경로억제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부위를 억제시키고 '본성막관'을 통해 해당 부위에 내재된 식업을 제도한다. 중추신경 38절을 본성막관으로 제도하는 것이 이때의 자비관이다. 일곱 번째 자비관이다.

무소유처정에 들어가면 본성과 생멸심을 분리시킨다. 이 과정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과정은 본성과 각성이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각성이 본성의 간극을 인식한 후 그 자리에 머무르면 각성과 본성이 하나가 된다. 이때가 바로 본각이 갖춰진 때이다. 본각이 갖춰지면 각성의 비춤이 없어도 본성이 현전한다. 이렇게 되면 의식 · 감정 · 의지가 본성에 입각해서 쓰이게 된다. 여덟 번째 자비관이다. 초입반야해탈의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본성과 심식의가 동떨어지는 것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간극에서 생성되는 밝은성품이 증장된다. 그렇게 되면 밝은성품의 기쁨에 빠져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도외시하게 된다. 그러다가 의식 · 감정 · 의지에 인식을 두면 그것들이 일으키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진다. 마치 옆집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상태에서 간극의 적멸상과 밝은성품의 기쁨을 함께 지켜본다. 아홉 번째 자비관이다. 중간반야해탈 과정이다.

간극의 적멸상과 밝은성품의 기쁨에 집중한다. 의식 · 감정 · 의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간극에 머물러서 먼저 무념을 보고 나중에 무심을 본다. 간극에 머물러서 먼저 무심을 보고 나중에 무념을 본다.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함께 지켜본다.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과 밝은성품을 함께 지켜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간극을 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무심을 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을 본다. 무심에 머물러서 간극을 본다. 무심에 머물러서 무념을 본다. 무심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을 본다. 밝은성품에 머물러서 간극을 본다. 밝은성품에 머물러서 무념을 본다. 〈중략〉 간극과 밝은성품 무념 무심을 함께 인식하면서 간극 - 무심 - 무념- 밝은성품의 순서대로 본제를 관한다. 간극과 밝은성품 무념 무심을 함께 인식하면서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고 본제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뚜렷하게 다른 것을 보고 서로를 여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25원통 수행이라 한다. 처음 삼관의 과정에서 25원통 수행을 시작한 이후에 해탈도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통수행을 행하게 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삼관 수행에서는 중심, 이면, 경계, 각성, 밝은성품이 주체가 되어서 25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과정이 열 번째 자비관이다. 종반야해탈도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④ 식(識)이란?

잘못된 디딤돌을 치워라

관념의 주객관적 그림자는 개체가 가진 무명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사량분별이 생겨나서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 나타난 그림자는 사실과 같이 우리에게 모양과 소리로 존재하면서 6식(六識)을 움직여 상호작용으로 서로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호의존성으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력을 버리고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허상에 마음을 일으켜 본래의 진식(眞識), 자상(自相, 여래장식의 진상)을 잃어 관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세상 전부가 아니라 표피로 느끼고 있는 아주 작은 인식일 뿐인데 우리는 그 인식이라는 것이 일부분인 줄 모르고 꼭 세상 전부를 보고 아는 양 치부하여 유무(有無)로 만들고 또 그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근심한다.

근심을 제거해야 하는 출발에 우리의 마음, 뜻, 의식이, 물질과의 조화에서 좀 더 나은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황되다. 그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왜 출발하였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물을 파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해서 지쳐버린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멈추고, 가만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을 지켜보게 되면, 순환하는 것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명백해진다. 이 명백함의 원인에 무엇이라는 이름 없는 그 찰나는 이 모든 것을 텅 비게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으로 꽉 찬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것조차 다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도 다시 이것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그 순환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라 하든지, '누구'나 '어떤 것'에 의지하여 실체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 작용과 의지하여 온갖 인연으로 생겨난 망심 현상을 내려놓아야 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과 저것은 어떤 것이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때의 그 지칭은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허상이 있으므로 허상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나타난 자체가 실상이니 허상이니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보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 이상 다음이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보는 주체를 사실로 알고, 그 다음을 아무리 잘 분석하여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육조스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무념(無念)으로 종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고, 무주(無住)로 본을 삼았다는 것은 관념의 가진 주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디딤돌을 치워버린 것이다. 우리는 디딤돌을 놓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건너가려는 마음만 있었지, 바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동정(動靜)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말자. 움직이지 않는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물질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는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動)이고, 계속 움직이게 두는 것이 정(靜)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물질의 생태에 따라 완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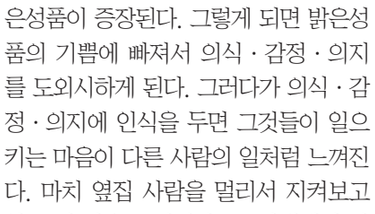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는 지금 물질의 생태에 따라 완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알고 있는 어떤 하나에 고정되어 판단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건너가는 주체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의지해 있던 디딤돌을 치우고, 반연하는 새로운 디딤돌을 놓지 않는다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더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힘을 잃고 모양 없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그때 스스로의 마음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심지 법문을 수지하고, 수행도 없었고, 증득도 없는, 본래 자각되어 있는, 성스러운 지혜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난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1호 | 17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9층 건물, 7층 10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80만원
  최고의 시설, 몸만 들어오시면 됨
- 대웅전 40평, 종무실 20평, 산신각 4평
- 주방 10평, 스님방 25평, 전체생광석 찜질방
  대형 남녀화장실 비구니 스님께만 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양평 전원주택지 및 선원자리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31-24번지 일대 (100평, 200평, 360평 등 평수 다양)
- 특징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진입도로 포장 완료, 토목공사 완료, 전망 및 조망 매우 좋음(평당 70만원)
- 참선(명상)자리 : 약 2500평 (계획관리+보존임야)
- 특징 : 개인 수행 정진하기 좋고 조용함, 필요시 인 · 허가 가능(매수자가 비용 부담) 향후 투자성 A급 평당 15만원, 계획관리 약 1400평 나머지 보존임야

010-2215-3657

사 찰 안 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합천호수 아래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옛굿당)이 옆에 있습니다.

- 대지 : 410평, 임야 217평
- 요사채 52평, 법당 16평 가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010-2078-9595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앞산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3억 5천만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산림청 매각대금으로 잔금 완납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옥돌 수천톤 산재 보존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급)안내

김해시 안동 6거리
창건 30년, 도량 270평,
매일 재개발로 들썩들썩
가액 11억
보상은 후임자의 몫으로

010-6898-911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010-2611-6522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상수도, 심야보일러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지 : 407평, 건평 1, 2층 70평
- 주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액 : 6억 8천(꼭 하실분만)

010-3000-5359

사찰 양도하실 분

희망 매수가 : 5억 ~ 10억 내외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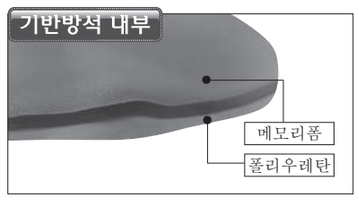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1호 | 18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육효 강의

4개월 완성
비구 비구니스님(비법전수)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한국불교 환인종 종도 모집

지역과 문중 관계없이 뜻을 함께 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종정 지훈 스님
010-8536-9853
부산시 금정구 삼차로 18-1(부곡동) 해동정사

30대 후반, 40대 전반 비구니 스님을 상자로 모십니다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121-1 밀림사
주지 지웅 합장
010-6893-5040

메주 청국장 판매합니다

스님께서 주문하시면 10% 할인 해드립니다.
010-2089-4143
010-9692-5775
약사사 공덕화 보살

능 가 사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강화군)
010-5301-8613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010-2239-03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재기는 경구

② 일일시호일



웃으면 복이 찾아오지요

서로 마주보는 얼굴.
서로 마주하는 모습.
밝고 환히 웃는 모습인가요?
아님 ㅎㅎㅎㅎㅎㅎ.
찡그린? 화가난?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희로애락(喜怒哀樂)?
이게 우리내 인생일까요?
그럼 한 번 크게 웃어봅시다. 이왕 인생 살아가는 거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웃으면 복이 찾아오지요.
마음은 밝아지고 기분은 상쾌통쾌.
매일 매일이 좋아지려면 웃는 생활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겠지요.
그 미소로 살며시 눈 감고 대자대비하신 나의 부처님 모습을 떠 올려보자고요.
그 무어라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미소 속에 나의 미소 한 번 같이 해 보면 어떨런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 좋은 일을 찾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더 큰 감사의 꽃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우리들 인생 삶의 정확한 답은?
부처님의 은은한 미소 내 마음 가득할 때 세상은 밝고 환해지며 매일 매일이 좋은 일들로 영글어가지 않을까요.
매일 매일 부처님과 동행하며 부처님의 미소 내 마음속에 가득 필 때 한없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리라.
석가모니불 좋은 날 되소서.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㉕ 고재종의 '보살'

이곳이 바로 보살들의 천국

보살 / 고재종

기역 자로 굽은 허리로
유모차를 밀던 할머니,
오늘은 작은 호박덩이로 말아져
그 유모차 위에 앉혀졌다
그걸 기역 자로 굽어 가는 허리로
이웃집 할머니가 다시 미는
돌담과 돌담 사이
잠시 하느님도 망각한 고샅길에선
누구도 시간을 묻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외로운지
딱딱한 것들의 목록뿐인
할머니의 어깨에 살폿 내려와 앉는
저 꿈같은 일에
아기처럼 웃는 할머니의 미소에
누구도 값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동구 밖 느티나무 잎들은
아무것도 원함이 없는
할머니들의 요요적적에 대해서
설(說)함이 없이 설하고
이미 거기 느티나무 아래
풍경이 되어 버린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들음이 없이 다 듣는다

–고재종 시집, 《꽃의 권력》, 문학수첩, 2017

지난해 중반께, 고재종 시인으로부터 시집 한 권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승한 스님께, 성불하십시오. 보내주신 시집 약력 중 '퍽 환한 하늘' 이 있어 이진영 시인님인 줄 알게 됐습니다. 출가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습니다만, 시집을 통해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략〉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오래 전부터 불교공부에 빠져 최근에 〈선문답과 한국현대시의 교감〉이라는 원고를 2000매 가량 써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독학이라서 원고 중, 선문답 부분을 좀 감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 시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필자는 눈에 보리 까시래기가 들어간 듯 쓰렸다. 십수 년 동안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고 시인의 편지 내용이 하도 곡진하고 무거워서였다. 불교 공부에 빠져 원고를 2000매나 썼다니, 공부도 보통 공부가 아니었다. 뒷날 들은 얘기로, 긴 죽음의 세월을 고 시인은 오로지 불교공부 하나로 버텨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선 그 책을 내지 못하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출판사(문학들)에서 500쪽이 넘는 두께로 그 책을 발행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2021년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책을 펴내게 됐다.(〈시를 읊자 미소 짓다〉라는 책명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독자들에게 회자됐다.

필자가 고 시인과의 사연을 이리도 주저리주저리 털어놓은 것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의 삶과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그의 시 때문이다. 전남 담양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 그 농촌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과 건강 문제 때문에) 딸기 농사(담양은 딸기 농사로 유명하다) 대신 시농사만 짓고 살아온 고 시인의 영농법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고 시인이 죽음의 긴 생애를 바쳐 2000매가 넘는 불교공부를 한 것도 "내 인생은 시작도 못했는데 이미 실패해 버렸다는 생각"에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진리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는 것" (프레데리크 시프테), 오직 그 하나의 행복만은 누리고 싶은 마음' (이상 〈시를 읊자 미소 짓다〉 작가의 말 중에서)이 구절초 향기처럼 느껴져 왔기 때문이다.

이 시에도 고 시인의 그런 삶(세상을 보는 눈)이 잘 드러난다. "누구도 시간을 묻지 않는", 그래서 "하느님"마저도 "망각한" "돌담과 돌담 사이" "고샅길"에서 늙은 할머니가 더 늙은 할머니를 유모차에 태우고 (딱히 목적지도 없는) 마실을 가는 모습이 선경후정(先景後情)으로 다가온다.

"참새 한 마리도 외로운지/ 딱딱한 것들의 목록뿐인/ 할머니의 어깨" 는 이 시가 내뿜는 절창 중의 절창이다. 살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가죽만 남은 두 할머니의 모습("딱딱한 것들의 목록뿐")을 (어느 시인이 있어) 이토록 아프고 절절하게 잘 그려낼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고재종 시인이 평생을 농촌에 살면서 "호박덩이로 말아져" 가는 할머니(보살)들과 살기 때문에 인식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삶과 풍경의 미학이다. 그러기에 그 할머니(보살)들의 삶엔 "누구도 값을 매기지 않"고, 매길 수도 없다. 오직 "동구 밖 느티나무 잎들"만 바람에 흔들리며, "설(說)함이" 없는 "설"을 할 뿐, "이미" "풍경이 되어 버린 할머니들"만 "들음"도 "없이" "다 듣"고 있다. 삼처전심(三處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이요 이심전심(以心傳心)일 뿐이다.

고재종 시인은 '보살' 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살' 의 평범성과 존재성을 묵언의 미학으로 알려주고 있다. 보살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다 보살이고, 우리의 삶이 다 보살의 삶이다. 그 삶이 호박덩이로 말아져 가면, 깨달음이 된다.

보살을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 보살의 사전적 정의를 짚고 가자. 보살의 첫 번째 의미는 '부처가 전생에서 수행하던 시절, 수기를 받은 이후의 몸' 을 말한다. 보살의 두 번째 의미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을 말한다. 보살의 세 번째 정의는 삼승(三乘)의 하나로서 보살이 큰 서원(誓願)을 세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교법을 말한다. 보살의 네 번째 의미는 절집에서 여자 신도(信徒)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다섯 번째 의미는 '고승' (高僧)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의미는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사는 여자 신도를 가리킨다.

그럼, 고재종 시인은 이 시에서 보살의 어떤 면(성격)을 취했을까. 언뜻 보면, 네 번째 의미의 보살 같다. 그러나 고재종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보살의 의미는 위의 여섯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보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고, 깨달음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세균성 급성폐렴에 내몰린 미얀마 가장의 꿈

가난 대물림 끊고자 한국 찾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타원씨
폐렴에 장기까지 세균 감염돼 신장 투석…치료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❷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 한줄 요약
모든 문제는 마음 속에서 결정된다.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 속에 지혜가 싹튼다



불교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아! 좋다' 고 찬탄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불교도는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 함께 자연스레 그 실천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다. '지혜를 행했다.'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현존으로 이 사바세계에 머물게 하므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몸이 붙은 샴쌍둥이처럼 대단히 밀접한 관계라고 설정해야 한다.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포함한 자율훈련이 중요하다. 모든 심리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기암시오, 자율적인 훈련이다.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마음이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율훈련은 마음과 몸의 건강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데 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를 세워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바꾸고, 창조력의 개발, 심리적 갈등의 해소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암시를 행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 등을 행하라. 암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바른 암시가 될 수 있는 말이나 이미지를 정해서 거듭 상기하여, 그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실지로 행하여 나를 다스렸던 방법, 나의 강한 성격을 고치려고 불교수행에서 가져온 방법을 밝힌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최혜자여! 그대는 오늘도 평안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 부처님 앞에 고하듯이 몇 번이나 반복하여 내 자신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차례로 떠올리며 기도하고 미운 사람도 떠올려 기도를 한다.

아침저녁으로 이런 암시와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어느날 어떤 경우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확 지르려다가도 퍼뜩 '최혜자여, 그대는 오늘도 부드럽고 고요하고' 가 떠올라 제 풀에 피식하고 화가 가라앉아 버린다. 이 방법을 오래하면 화를 일으킨 내가 그만 쑥스럽고 민망하여 스스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자율훈련은 이와 같이 괜찮은 방법이 되었다. 물론 그 후로 나의 괴상한 화풀이는 줄어 들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다 고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화를 제거하리라는 확신이 든다.

자기암시 훈련법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암시로서 심신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태에 따라서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암시가 몸에 변화를 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 암시는 더욱 강화된다. 마음이 몸에게, 몸 상태가 마음에게 주는 정보의 방향으로 현실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한다면, 실제 그 방향으로 마음과 몸은 변화한다.

인도에서 오천년 전 그 시대에 이미 세속을 버리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높은 뜻을 펴나간 사람들이 있다. 요기들로서, 숲 속의 고행자들이다. 불교나 힌두교에 있어서는 명상이 근본적인 수행법이다. 물론 불교와 힌두교의 명상은 그 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다. 힌두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깊이 성찰하고 발견하는 체험을 통해 인간이 인간 안에서 신과 합일하는 종교이다. 그 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서 내가 신과 다름이 아님을 느끼며 축복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신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신의 상태를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부처님은 싯다르타 인간의 몸으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무상정등정각을 얻는 본을 보여서 우리 인간중생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 다른 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은 나라는 존재는 없고, 모든 것은 공이라는 공사상이다. 부처님의 법은 자비와 지혜 두 날개로 난다.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방법 중 큰 줄기가 명상수행이다. 실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명상수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다.

> **몸 ·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
> **심리적 갈등 해소 문제 필요**
> **마음의 방향 따라 몸도 변화**
> **목표를 두고 전진하면 이뤄져**

철학자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이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바로 이 생각을 맑은 이성으로 사유하고 의지처로 삼아 덧없는 인생 속에 단호히 자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 부처님이 임종 시에 제자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자신을 의지할 바로 삼을 것이며 타인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바로 삼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얼마나 높이 신뢰했는가를 분명히 알려준다.

일체개고는 참으로 염세적인 색채가 짙어 보이지만, 결코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오는 공허와 허식이 아닌 실제 인간의 바탕이 고통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없는 것이다.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바로 그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고집멸도 사제에서 고통이라는 이 세상 근본 사실을 본 것이지 염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은 집착의 구조로 보았다. 집착은 생존이므로 인간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고다. 인연이 결집하는 까닭은 생존이고,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유한할 것이라는 12연기법 첫 번째 무명무지로 나타나는 것이 갈애이다.

갈애란 살아남으려는 격한 욕망 혹은 욕망을 있게끔 하는 오욕의 충동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전도망상이 오욕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켜 충족을 찾고 즐거움만 바라는 이것들이 바로 상생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인간 욕망의 실상에 대해 무지하여 자연히 욕망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의 괴로움, 고통이 생겨난다는 고제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여기에 멸제와 도제의 명제가 정립된다. '갈애를 남김없이 멸하고 떨쳐버리고 해탈하여 집착없도록 함이로다.' 이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인생은 고(苦)로 차 있으니 이 고는 집착으로, 집착은 갈애로서 있고, 갈애는 무명이 존재함으로써 있는 것이니,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집착을 없애야 하고,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갈애를 없애야 하고, 갈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석존의 고통스러운 인간존재에 대한 처방원리이다. 눈을 크게 뜨고 지혜를 발하여 갈애를 멸하고 집착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해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 여기에 도의 명제가 제시된다.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 것이다.

석존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을 단념하는 일 없이 지혜에 의해 그 길을 구했다. 이성만이 인간이 갖는 최상의 것이고, 최후의 의지처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방황과 혼미의 생활에서 바른 생활로 들 수 있고, 동물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고귀한 인간생활로 들 수 있다. 이 것이 석존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가르침이다.

고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있게 사는 것이리라. 가장 가치있는 일은 존재보다 나은 진화를 위한 마음공부이다. 이번 생에 그 실현을 위해서는 불굴의 도전정신에 끊기지 않는 긴 마음, 장영심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시련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것이 수행의 길이다.

이러한 여러 사항 가운데서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건강할 것 △마음과 정신이 여유로울 것 △의지력이 강할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잇을 만큼 용감할 것 △참을 성이 많을 것 △마음이 너그러울 것 △불안과 불평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낙관적일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7가지의 기본성향, 결국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은 우리들의 내부에 잇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 속의 괴로움이 끝난 자리나, 모든 고통을 이겨낸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자리이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자리이고, 모든 고통을 극복한 자리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경의 경지란 무한한 고통의 극복 끝에 오는 지극한 안락의 자리다. 열반의 길은 끝없는 전진이요, 모든 번뇌와 고통을 극복해 내는 길이다. 부처님 말씀에 '수행은 삶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감내할 수 있는 길' 이라고 하셨다. 끊임없는 극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한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된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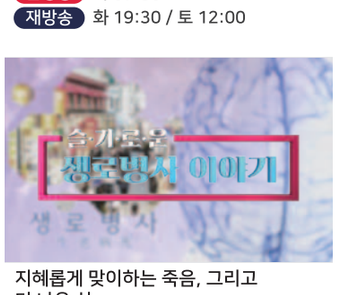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1 호 현대불교
2023년 1월 25일(음 1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것도 다놔버릴 수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을 작년에 만나 뵙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는 작년이라는 말을 해 놨고 올해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질서가 문란하겠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질서와 교양, 교육, 충성, 효도, 의례 의식이나 모든 천 · 지 · 인 삼재의 그 질서적인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엄 세계를 저렇게 (뒤편의 목탱화를 가리키시며) 해 놓은 것은 천지인 그 삼재의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를,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영화를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그거 실감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구르든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죽었어도 또 되살아나. 그게 무슨 원리인가. 주인공이 없다면 마땅히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또 살림살이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돌아가질 않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제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뛰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이 살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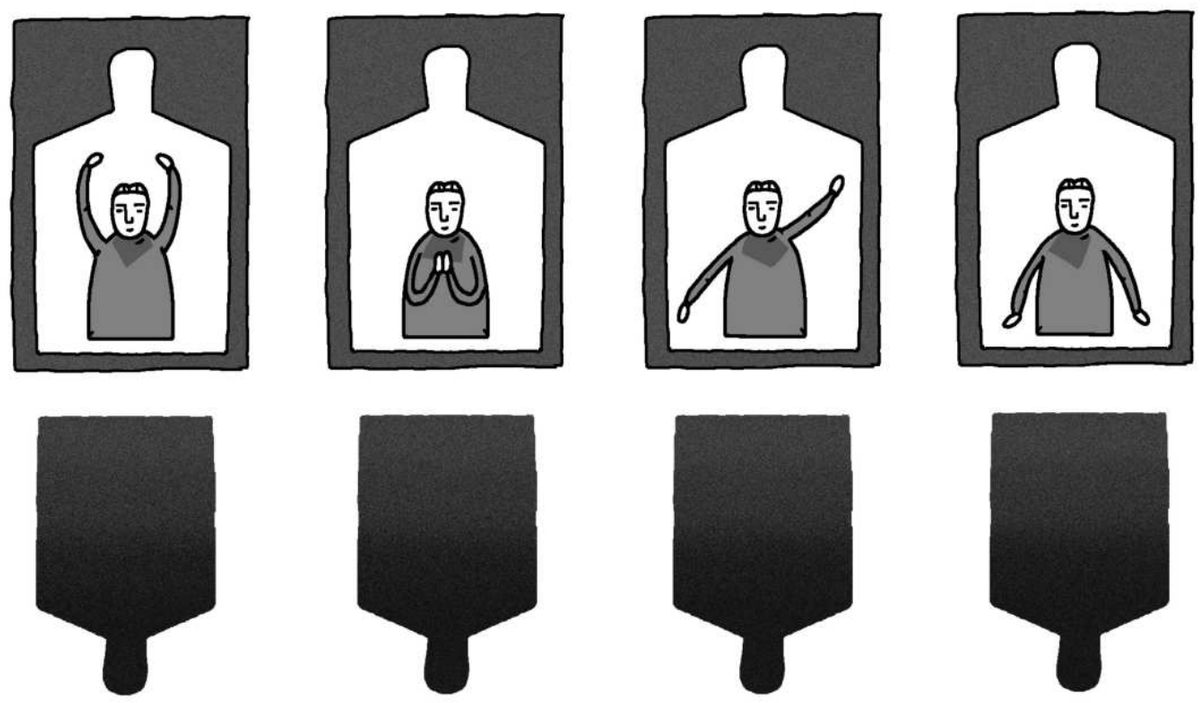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중 예.

큰스님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저런 걸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마음에서 일차적으로는, 한 말을 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 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바로 놓고 난 뒤에,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산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에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앉아서 집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어.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어.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 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 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잘 내!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구, 꿈 잘못 꿨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또 조상에게도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형제가 있다면 형에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동생한테도 자식이 있겠죠. 형에게 자식이 있으면 형의 제사는 그 자식에게 밀어던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났겠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서 그날을 맞이해서 심중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덮어놓고 착을 붙일 거나 안 붙일 거나 다 붙여 돌아가서는 집안의 가환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그냥 쉽게 생각 낸다고 그러지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죽거리지 않죠, 비교한다면.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넝마전은 넝마, 무쇠전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도 모르신다면 이건 큰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욕심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 가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에 의해서 아주 출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독 안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을 타파 못 한다면, 자기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세심 내공을 타파 못 합니다. 삼세심의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사공법을 몰라.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서 원통자활을 못 해.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 22면으로 계속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콩싹이 바깥에서 콩씨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백 년을 가도 안 되고 천 년을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왜 걱정하게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또 교육을 받음으로써 좋고 그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라도.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다가 습기와 모든 에너지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다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둘이 아니니까 주인공에 전해진다면 바로 자기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생각을 내면 애비가 돼 버리고, 둘이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비가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자식이 전달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 살아나오면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할 때에 너지로 인해서 그냥 넣어 주란 얘깁니다. 주인공에 맡겨 놔, 잘 끌고 다니라고. 그런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밀어서 그렇게 가게끔 한다면 여러분한테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잘되고자 생각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된다더라.' 하는 것도 거기다 놓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야. 죽고 사는 거는, 한울에 매여 있어.

각본대로 이렇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각본대로 여러분이 한 것만치 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 그러니 그 한 것만치 악과 선 속에서 그냥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란 얘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믿고 놓고, 모르고 아는 거를 다 감사하게 놓고 '거기서밖엔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그러고 난 뒤 생각을 잘하시란 얘깁니다. '언짢다' 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언짢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짢을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 가지 생산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마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볼 때에, 체가 있는 몸뚱이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입니다! 또 미래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문제인데도 그거를 몰라서 과거를 묻고 현재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또 미래를 묻습니다.

예전에 여기에다 법당을 지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께서 "여기에다가 지으면은 궁색함을 면할 수 없어서 여기가 좋질 않은데…."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전 잘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못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좋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좋겠죠, 뭐." 허허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고, 수원이 앞으로는 큰 도시가 되고, 또 여기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좋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아는 소리도 잘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말 못 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만 배우면 건방져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하고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나빠진 부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좋아진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보고 듣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가 아닐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안양을 보십시오. 그때 50년 전에 있었다 생각하고 한번 미래로 돌아서 지금을 보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 그러한 말을 하면, 그럼 왜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하겠죠.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아서 자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얕게도 해 놓고 높게도 해 놓을 수 있으니까 높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얕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높게도 해 놓을 수 있고 얕게도 해 놓을 수 있는데 '저기는 몇 해 전에 이렇게 왔고 저기는 몇 해 있으면 높고'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 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야, 자연적으로 스스로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어떻게 회사에 가셨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내공의 타파를 못 하며, 삼심 내공의 타파를 못 합니다. 이 세상 사공법을 모릅니다. 오심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원심력 말입니다. 원통력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 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거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으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과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끼리끼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쇠전에 무쇠가 모이고, 아니 쌀전에 가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야. 안 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놓고,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옴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할 수가 있고 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은 그게 뭔 걱정이 있습니까? 네? 무쇠도 녹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깔봐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 놓으면 무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 명의 한 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럭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 닥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이나 뭐를 보지 말고 의례 의식을 지키지 말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시주할 돈이 없는데 빚을 내다가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모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분수를 지켜서 해라 이겁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럭하면 된다더라' 하고 남의 말 생각하듯 남의 말을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기서 생산이 돼서 나와.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밑으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되, 내공을 타파해야만 이 나중에 경을 봐도 그게 거름이 된다는 얘깁니다, 전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지. 그 자리에는 한 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생산처가 생각나는 대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제발 진실로 믿고, 가정의 괴로움을 덜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자식들의 업보나 괴로움을 덜어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 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태양의 근본도, 세상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2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MZ세대 포교로 미래 준비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2021년 조사서 종교인 40%에 불과
과반수가 무종교인… 탈종교 가속화
기성종교들 사회 비전, 실천 제시無

MZ세대 조직보다는 개인 자유 중시
스스로 사유, 성찰하는 명상 즐겨해

진우 스님 취임사서 '전법포교' 강조
전법선언, 불자 지상명령이자 생명줄
MZ위한 맞춤 포교 방법론 연구해야

코로나19의 팬데믹이 3년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상처를 입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일반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소상공과 종교계, 예술계 등이라고 한다.

2021년 '한국의 신앙인 비율' (한국갤럽)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56%였던 종교인구가 40%로 급감했고, 무종교인수가 60%로 급증하였다. 20대는 '나는 종교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급속하게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젊은 청소년이 예배나 법회의 종교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학생회 모임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종교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탈종교화의 원인을 진단했다. 첫째, 천당과 극락, 기복적인 제사나 기도 등 전통적인 종교의 기능이 일반인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종교지도자의 도덕성 부재와 종교적 삶에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것도 신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셋째, 기성종교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를 향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미래사회의 주역인 MZ세대가 종교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

MZ세대는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생활한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입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한다.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얽매이는 구속을 거부하며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하기를 좋아한다.

MZ세대의 놀라운 현상 중의 하나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속의 성스러움(불성, 영성)을 사유하고 성찰하기 위하여 불교의 '명상 수행' 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명상과 수행' 의 강좌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여 명상을 체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상윳따 니까야〉 '화살경' 에 나오는 "같은 화살에 두 번 맞지 말자"는 화살의 비유가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에서 첫 번째 화살에 맞았다. 불자 수가 급감했다. 또 다시 준비와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또 팬데믹이 와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면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가르침이 있다. 미래불교의 주인공이 될 MZ세대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성찰하는 불교적인 수행법인 명상을 선호한다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작년에 새로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하나도 전법포교, 둘도 전법포교, 셋도 전법포교"를 선언하며 종단운영의 기치를 내걸었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은 불자에 대한 지상명령이요, 불교교단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이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교단과 사찰, 모든 불자들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지금 당장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법포교 방법론을 연구하여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를 양성해야 한다.

21세기는 명상이 대세이다. 청소년의 수준과 일반시민의 기호에 맞춰서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명상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社 說

관람료 감면, 국가 지원으로 이뤄져야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불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사회 갈등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왔다. 1962년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면서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관리 편의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다가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만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 이후부터 전국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국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목표라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가 419억 원 예산 중 30%를 지방비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럴 바엔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역시 비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전금' 이기 때문에 지방비 배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이중고도 예상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큰 걸음이다. 기재부의 협조를 바란다.

한 해 출가자 200명 시대 현실 되길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5년 안에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목표로 걸고 출가 진흥 정책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자리는 혜일 스님이 교육원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으로 향후 5년간의 승가교육 종책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다.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한 혜일 스님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의 백년을 책임질 인재를 담아내는 종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출가자 감소문제는 '출가 절벽' 이라고 표현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1990년대만 해도 한해 4~500여 명에 달했던 조계종 출가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2008년 200명대에 들어섰다. 2017년에는 한 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부터는 100명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61명에 그치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을 운영하고 교육기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200명은 출가자를 유지해야 한다. 혜일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200명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인감소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기본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인원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혜일 스님은 연수교육에서 출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반영하고 행자 생활 기간 중 애로사항 상담 등에 더욱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이는 MZ세대 전법 출가 진흥 종책과도 맞닿는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에 전면전을 선언한 9대 교육원이 꺾어진 출가자 그래프에서 다시 상승곡선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탐라는 '섬나라'

제석천의 달 토끼가 인간 세상의 바다로 내려왔다. 제주의 동쪽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별방진에 이른다. 그 진성 앞에는 작은 포구가 있고, 그 바다에 토끼섬이 떠 있다. 그 섬에 문주란이 핀다.

이 토끼섬은 문주란 자생지인 천연기념물로 7~9월에 흰 꽃이 산형화서로 핀 모습이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다. 이 꽃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쪽으로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느 태고의 조류를 따라 흐르다 북방한계점에 이르러 터를 잡았다. 꽃만이 아니라 새들은 바람을 타고 사람은 물을 건너와 제주에 터를 잡았다.

이처럼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의 옛 이름은 탐라, 탁라, 탐모라 등이다. 한치윤의 〈해동역사〉에서 동국방음(方音)에 '도(島)' 를 '섬' 이라 하고, '국(國)' 을 '나라' 라 하며, 탐 · 섭 · 담이 세 가지 음은 모두 섬과 비슷하다고 풀이했다.

즉, 탐라는 '섬나라' 이다. 탐라는 〈후한서〉 '동이열전' 과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에 주호국은 마한 서쪽 바다 큰 섬의 세력이라고 했다. 한반도 부속 도서 중에 가장 큰 제주도가 고대 주호국의 세력이라고 추정된다. 탐라가 본격적으로 사서에 등장한 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 〈일본본기〉와 〈일본서기〉, 수나라 〈북사〉, 당나라 〈당회요〉와 〈구당서〉 등인데, 3~7세기에 경제 · 정치 · 문화에 걸쳐 주변국과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와는 언제부터 교류했을까?

〈삼국사기〉 '백제본기' 에 따르면, 문주왕 2년(476)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해 은솔로 삼았다' 고 한다. 2년 후 왕이 된 동성왕 '조' 에 "8월에 왕이 탐라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자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기에 그만뒀다. 이 탐라는 탐모라다"하였는데, 이때 왕자의 관직을 받는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조' (662년)에는 "탐라국 주인인 좌평 도동음률이 항복했다. 때문에 좌평을 관호로 삼았다. 신라에 항복해서 속국이 됐다." 이후에도 탐라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교류했다. 한편, 〈구당서〉 '유인궤 열전' 에 보면, 백제 멸망 후 '백제 · 왜 연합군 잔병들이 항복할 때 탐라인도 같이 데리고 항복했다' 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탐라군도 백제부흥군과 함께 왜군과 연합해 나당동맹군에 맞서 백강 전투에서 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신라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때의 아홉 나라에도 탐라가 들어있다. 신라에서는 탐라를 속국으로 삼은 이후에도 왜, 중화, 말갈, 예맥 등과 함께 '구한' 의 하나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나당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679년에 신라가 다시 탐라를 경략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탐라국 왕세기〉에 신문왕 때(684) 탐라는 고지창을 신라에 보내 설총의 이두문자를 도입했다고 한다. 또 김헌창의 난 때(822)는 신라 귀족들 일부가 탐라로 피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탐라는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활발한 외교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한반도 삼국은 물론 모든 동아시아 국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탐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 아제여행사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현대불교문화사업단
2023 불교국가 투어

행복지수가 높은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화엄경을 재현한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초원의 나라 몽골 5일

희망찬 새해 기운을
부처님 품안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출 발 :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원

주요일정
파드마 삼바바 수행동굴 탁상사원 참배
3대쫑(파로,팀푸, 푸나카) 방문
민속공연 관람, 링포체 친견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출 발 : 4월 29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방문
보로부두르 대탑 참배
자바섬 주요 불교사원 참배
신들의 섬 발리 휴식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출 발 : 3월 23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입상·좌상·와상의 길비하라 폴론나누와 참배
세계8대불가사의 바위위의 궁전 시기리아락 방문
스리랑카 아프리카 코끼리 사파리 투어
홍차의 메카 누와라엘리아 체험



초원의나라 몽골 5일

출 발 : 6월 15일
동참금 : 1,390,000원

주요일정
아름다운 국립공원 테를지 관람
목초지 트래킹 밤하늘 별빛 감상
울란바타르 간덴사원 몽골불교체험
몽골전통공연 관람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